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정책 이야기

# 행복한 교육

참다운 나를 발견하는 여름방학 진로체험  
4차 산업혁명시대와 인문학  
7월, 학기말을 잘 보내는 노하우  
쿨하고 싶지만 불안한, 내 아이의 '이성교제'

행복한 교육 2017년 7월

기획 - 참다운 나를 발견하는 여름방학 진로체험

# 기죽지 말고 살아봐 꿈 피워봐 참 좋아



교육부 x 나태주 시인 '풀꽃'이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응원합니다



# CONTENTS

VOL. 420 JULY 2017



02



08

## 현장 이야기

꿈이 영그는 현장 충북 삼성중학교	02
삶과 교육 유병대 홍성여자고등학교 교장	08
이런 수업 어때요 양경운 수석교사의 '도덕과 하브루타 질문 수업'	12
아하! 창의체험 대구왕선초등학교 '드라마 교육'	16
화제의 교사 부천상록학교 전공과 교사	20
학교가 즐겁다 교실에서 무더위를 날리는 놀이	22
에너지충전소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수업자료지원단 공립유치원교사 수업연구회 '고양 아띠어울림 교육'	24

## 정책 이야기

<b>기획</b> 참다운 나를 발견하는 여름방학 진로체험 “물입의 경험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김중된 기관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해볼까 대학생이 제안하는 나의 초·중등 방학생활 학생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진로체험 활성화 정책	28 30 32 34
<b>정책N전망</b> 모든 학생과 손잡고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	36
<b>정책 특(Talk)</b>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	38
<b>정책카툰</b> 학교기업, 취·창업 플랫폼으로 새 단장	40

## 정보 이야기

<b>교육논단</b> 4차 산업혁명시대와 인문학 4차 산업혁명과 인문소양교육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학교교육	42 44
시도교육청 플러스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강원/대구/충북/대전/부산/경남/세종/인천/충남/전남	46
세계의 변화 교육의 진화 독일 중등학교의 '중점 교육과정'	50
학급경영노트 7월, 학기말을 잘 보내는 노하우	52
아이의 다락방 쿨하고 싶지만 불안한, 내 아이의 '이성교제'	54
학교 밖 학교 즐겁고 재밌게 배우는 수학체험	56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민원	58
명예기자 리포트 서울국제도서전에서 만난 이스라엘 부대사관 外	59
진로나침반 소장품 관리전문가 '레지스트라'	64
대학길잡이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노하우③	66
자녀교육 Q&A 생각을 술술 표현하는 아이로 키우기	68

## 교양 이야기

이야기 인문학 왜 행복을 갈망하는가	70
일상의 씬표 경남 하동, 길이 들려준 이야기	72
생각나눔 더운 교실에서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은?	76
뉴스브리핑 제6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 개최 外	78
행복게시판 구독신청 & 이벤트	80



17



72



### COVER STORY

나를 찾아가는 여정은 늘 설렌다. 처음엔 그저 호기심으로 캠코더를 잡았다는 갈매중학교의 학생들은 카메라 앵글에 우리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어 '참 행복하다'고 말한다. 새로운 경험은 도전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세상이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갈매중학교 UCC영상제작반 학생들이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김상희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미디어체험을 하고 있다.

- 본지에 수록된 기사·사진·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duzine21@gmail.com)
-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경쟁력 키우며 '가고 싶은 학교'로 탈바꿈

충북 음성군 마이산 남쪽으로 나지막한 구릉지에 자리한 삼성중학교(교장 홍석중)는 전형적인 농촌학교다. 전교생 147명으로 한 해 신입생 수는 40명을 웃돈다. 이 학교는 최근 인근 지역은 물론, 도시지역 학생들에게도 '가고 싶은 학교'로 꼽힌다. 올해 신입생 48명 중 6명은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이다. 학교장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 또한 입학할 문을 학부모들과의 상담이다. 홍석중 교장은 "지역 외 학교 출신 입학생이 10% 이상이다. 농어촌 지역 학생 수의 자연감소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입학생은 작년 대비 20% 가까이 늘었다."고 말한다.

##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로 우뚝

"음성군은 전통적인 농업 군으로 예부터 양질의 농·특산물 생산해 왔지만, 1987년 중부고속도로 개통을 시작으로 기업체들이 입주하면서 60%에 가까운 학부모가 회사원이거나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지요."

홍 교장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와 환경을 조성해 주는 노력에 힘을 쏟았다고 덧붙인다. 2013년 교육부 지정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선정은 변화의 기폭제가 됐다. 선진형 교

# 충북삼성중학교

과교실과 특별실을 증축하고 교과별 다양한 체험학습과 특기적성교육, 동아리활동 등의 지원으로 학생들은 다채로운 경험을 쌓았다. 북카페, 체력단련실, 진로상담실, ICT실 등 각종 설비를 갖춰 특기적성 활동과 스마트 교육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한 점도 눈길을 끈다. 특히, 야간돌봄공부방 '반딧불이'는 소그룹 맞춤형 수업을 지원한다. 학력향상과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을 우선 선발해 국·영·수·사·과 교과에 대한 야간 특별수업을 지원하고, 칸막이 독서대를 설치해 학습여건도 마련했다. 3년 동안 독서, 한자, 영어, 컴퓨터, 예체능 분야에 자신의

목표를 세워 실천하는 '삼성 청소년 성취 5품제'는 4박 5일간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다. 그동안 일본, 필리핀 등을 다녀온 학생들 중에는 비행기를 타거나 해외로 나가본 경험이 처음인 아이들이 대다수. 올 3월에는 신입생 48명이 2·3학년과 함께 강원도 평창 용평스키장으로 '새내기 스키캠프'도 다녀왔다. 아이들은 넘어지는 법부터 질주요령 등 기본 스키 기술을 배우며 선후배간 돈독한 정을 쌓았다. 1학년 김동하 양은 "생전 처음으로 스키를 타봤다."며 "서먹했던 학기 초에 친구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웃는다.





- 01 문화의 장으로 개관한 예문당의 노래연습실 점심시간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 02 각종 운동기구가 마련된 체력단련실
- 03 학교 역사관
- 04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 희망자 모집 안내가 복도 창문에 붙어 있다.
- 05 교과교실은 모둠학습 모형으로 이뤄져 있다.
- 06 수준별로 운영되는 학생활동중심 수업
- 07 선진형 교과교실 구축으로 층마다 휴베이스가 마련돼 있다.
- 08 아간돌봄공부방 '반딧불이' 칸막이 독서대
- 09 학생들 작품으로 꾸민 교실 창문
- 10 홍석중 교장(맨 오른쪽)과 교직원들



### OMR 카드 없는 100% 서술·논술형 평가

현재 스키캠프와 해외교육문화 탐방은 물론 천체관측, 지질 답사, 드론동아리 등은 지역사회의 교육기부와 동문의 지원으로 이뤄지고 있다. 전교생 교복 지원과 장학금 등에도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교육이 뿌리 내린 삼성중은 운영에 있어서도 학교 간 수업공개에 나서는 한편, 주변 초·중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충북 도내 학교에서 주목하고 있는 삼성중의 시도는 평가의 혁신이다. 삼성중은 주요 과목을 비롯한 모든 교과 시험을 OMR카드가 없는 서술·논술형 지필형태로 바꾸고, 과정중심의 수행평가 비율을 최소 40%에서 100%까지 반영

하고 있다. 김은선 부장교사는 “OMR에서는 볼 수 없었던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항상 100점이던 아이가 논술한 답을 보고 그동안 이해를 잘 못했다는 걸 알게 됐다. 오히려 매번 낮은 점수를 받던 아이가 디테일에서 떨어져도 나름의 논리성을 잘 갖추고 있었다.”고 말한다.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채점을 위한 충분한 시간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지만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는 평가”라는 데는 모두가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평가 혁신을 통해 거둔 또 다른 성과는 수업의 변화다. 수업이 이뤄지는 교과교실 대부분은 모둠형태로 이뤄져 있다. 김 부장교사는 “수업이 이벤트로 끝나는 이유는 평가가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며 “학생활동 중심 수업이 모든 교과에서

이뤄지고 있고, 이를 위한 수업연구도 활발하다.”고 말한다.

### 학생 중심의 교육활동, 학생자치

교육활동은 학생자치가 중심이 된다. 학교행사가 열리면 기획부터 진행까지 모두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체육대회는 사회부터 경기 운영·심판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학생회 주도로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과 모범상 심사에 참여해 수상자를 결정하고 있다. 특히, 해외연수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학생 심사위원 6인과 교사 1인이 참석한 가운데 희망학생 2~3명이 팀을 짜고 ‘자신이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프레젠테이션(PT)을 한다. 성적우수자가 아닌 학교활동에 열심히 참여하고, 열정적으로 노력하

는 학생들에 대한 아이들의 심사는 더 꼼꼼하고 객관적이다.

소규모 테마형 체험학습도 학생들이 주도해 체험 내용을 선정하고 계획한다. 30여 개의 진로노선 가운데 희망에 따라 10인 이내의 소규모 그룹을 편성하고, 2박 3일간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이때 아이들은 주어진 각종 ‘미션’을 수행하며 정해진 돈에서 무엇을 먹을 지도 서로 논의해 결정한다. 유성부 교감은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활동이 진행된다. 원하는 아이들이 무학년제로 모이면서 선후배간 갈등과 폭력도 사라졌다.”며 “자기주도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성취감과 만족도가 높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이들이 눈에 보인다. 수업시간에 아무 말도 안 하던 아이가 이런 걸 잘하는 구나 알게 된다.”고 말한다.

### 학교를 말하다

## “우리 학교가 좋은 이유요? ○○○ 때문이죠!”

충북 음성군 삼성중학교(교장 홍석중)는 전교생 147명 규모의 작은 농촌학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인근 지역은 물론, 도시 지역 학생들에게도 '가고 싶은 학교'로 꼽힌다. 농어촌 지역 학생 수의 자연감소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입학생은 작년 대비 20% 가까이 늘었다. 지역 외 학교 출신 입학생도 10% 이상에 달한다. 삼성중학교 학생 4인이 말하는 우리학교 이야기를 들어보자.

### “우리 일은 우리가 결정해요!”

3학년 김주는 양은 학생회장으로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 학교의 굵직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학생회 임원회의를 열고, 선생님들과 의견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체육대회를 준비할 때는 3~4일을 꼬박 준비했다. 행사 사회부터 각종 경기 진행과 심사, 원활한 게임 진행을 위한 스텝까지 모두 빈틈없이 준비하려다보니 회의도 많고 준비할 일도 많았다.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다보니 가장 기억에 오래 남고 뿌듯해요. 친구들이 심판을 보니 오히려 갈등도 없고요, 아이들도 잘 따라줘요.” 올해 초에는 선행·효행상 수상자 심사에도 참여했다. 수상자에게는 백두산 체험학습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 공정을 기해야 했다. PT를 통해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한 아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학생회 회의를 통해 누구나 인정하는 ‘착하고 효심이 바른 친구’에 대한 의견을 학교에 전달했다. 학생회 의견은 선생님 의견과 합산돼 최종 수상자 선정에 반영됐다. “학생회 의견을 학교에서 존중해줍니다. 두발·화장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죠.”

3학년 김주는 양



2학년 이재민 군

### “드론 기술자를 꿈꿔요”

2학년 이재민 군은 드론 조정이 취미다. 지난 1년간 학교 방과후 활동과 연계한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드론을 맘껏 만지며 조종기술을 익혔다. 매주 월·화요일 1시간씩 지역사회의 교육기부로 열린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이 군에게는 새로운 꿈도 생겼다. “원래 로봇과 기계에 관심이 많았어요. 드론을 조종할 때면 기분이 좋아요. 앞으로 드론을 좀 더 배우면서 드론을 고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난해 10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행복교육 박람회’에는 동아리 친구들과 직접 드론으로 체험부스를 운영했다. 부스를 방문한 수백 명의 관람객에게 드론 비행기술을 선보이며 알려줬던 경험은 가장 뿌듯했던 기억이다. 지금도 종종 학교 행사나 인근 초등학교 대상으로 드론 비행을 선보일 때면 누구보다 어깨가 올라간다.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즐거워요. 앞으로도 드론 조종으로는 최고가 될 겁니다.(웃음)”

3학년 박영규 군



### “매년 해외문화탐방 떠나요~”

3학년 박영규 군은 ‘삼성 청소년 성취 5품제’로 해외문화탐방의 기회를 얻었다. ‘삼성 청소년 성취 5품제’는 3년 동안 독서, 한자, 영어, 컴퓨터, 예체능 분야에 자신의 목표를 세우고 교내 동아리활동, 방과후 활동을 통해 이뤄가는 과정이다. 여기서 목표에 도달한 학생 20명에게는 매년 2회에 걸쳐 해외문화탐방 기회를 부여한다. 박 군은 목표에 도달한 후, 치열한 프레젠테이션(PT)을 거쳐 선발됐다. 1학년 때는 필리핀을, 2학년 때는 일본을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PT는 3~4명이 한 팀을 이뤄 자신의 팀이 해외연수를 가야하는 이유에 대해 선생님 1명과 6명의 학생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해요. 팀을 이룰 때는 희망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함께 하면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 도우며 준비하죠.” 지난해 일본 오사카에서는 일본 오사카 하고모로 중학교 친구들과 전통부채 만들기, 일본 텐다마 경연 등을 통해 교류하고, 오사카과학관과 해양수족관, 미션 자유여행으로 문화체험을 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오사카에서 집합장소를 찾아가는 미션 등으로 재미있는 추억도 쌓았다. “해외문화탐방으로 처음 해외에 나가봤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했지만 그 나라 친구들과 민요를 함께 부르며 서로를 이해하기도 했어요.”

1학년 김동하 양

### 스키캠프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올해 신입생이 된 김동하 양은 집 근처 가까운 중학교를 포기하고 삼성중학교로 진학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참여했던 천문대 체험학습이 “이 학교에 꼭 오고 싶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천문대 체험학습은 농어촌 거점 우수학교로서 인근 학교와 연계해 운영한 삼성중의 특색 프로그램이다. “삼성중 체험활동이 다양하다는 걸 알고 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할 때는 강원도 평창으로 스키캠프를 다녀왔지요.” 삼성중은 재량휴업일에도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운영한다. 지난 5월 1일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마이산 등산, 5월 2일에는 전주 한옥마을 체험을 다녀왔다. 김 양은 “멀리 다니는 보람이 있다. 학교가 즐겁고 오면 신난다.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활짝 웃는다. ②



유병대 홍성여자고등학교 교장

# “교육자는 아이들 위해 노력할 때 행복한 사람”



은회색 곱슬머리에 그을린 피부, 짙은 눈썹 아래 웃음기 담은 눈매, 둥근 코 양옆으로 이어진 입 꼬리... 시쳇말로 ‘만찐남’(만화책을 찢고 나온 남자라는 뜻으로 수려한 외모를 빗댄)이긴 한데, 장르가 조금 다른 만화다. 대마왕에 맞서 목표를 성취해 가는 명랑무협만화의 캐릭터처럼, 어려운 조건을 극복하고 학교를 주인공으로 우뚝 세워온 이가 유병대(60) 홍성여고 교장이다.

### 모든 교실로 찾아가 부임인사

“귀신 잡는 해병대, 해병대 위에 유병대!”

지난해 9월 1일자로 이 학교에 부임한 유병대 교장은 학생들과의 첫 만남에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다. 눈에 띄는 점은 유 교장이 일일이 교실로 직접 찾아가 부임인사를 전했다는 것이다. 마침 모의고사가 시행되는 날인 데다가 비까지 흠뻑리는 날씨가 학생들을 한데 모으기에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형식에 붙들리지 않는 유연함과 권위의식을 내려놓은 그만의 소통방식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소통은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학교경영은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이 중심입니다.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특히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유병대 교장의 공간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이 수시로 교장실에 들러 초콜릿 등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운다. 서로를 바라보는 표정과 말투에서 친밀감이 묻어난다.

### 일반직 공무원에서 아이들의 선생님이로

유병대 교장은 경북 봉화 출생이지만,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대전의 친척집에 머물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서울의 명문대 사대 진학에 실패한 후 재수는 꿈도 꾸지 못한 채 부산시 9급 공무원으로서 사회에 첫발을 디뎠다. 6년간(1978-1984) 부산시 남구청 산하 동사무소에서 8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중학교 교사인 고교 동창생을 만나면서 접었던 교사의 꿈을 다시 펴기 시작했다.

“중학교에 근무하던 친구가 제자들이 보내준 편지를 보여



01



02

01 학교경영에 있어 교육공동체와의 소통이 중심이라고 믿는 유병대 교장은 학생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려고 늘 노력한다. 아이들에게 줄 아이스크림을 한아름 들고 가는 교장선생님

02 ‘먹으면 美쳐! 함께 먹으면 완전 美쳐!’ 교장실 테이블에 놓인 초콜릿 바구니엔 재밌는 글귀가 쓰여 있다. 누구라도 교장실에 들러 아름다워지는 마법(?)의 초콜릿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자는 메시지다.

주기도 하고 교직에 대한 즐거움과 보람을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망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나도 대학을 가야 해. 나도 사범대학 시험을 보았었잖아. 꼭 선생님이 되는 거야.’라는 마음으로 ’84년 4월 사표를 내고 새벽부터 밤까지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여 만에 공주사대 수학교육과에 합격했지요.” 당시 그의 나이 29세, 마침내 33세에 이르러 첫 교단에 서게 됐다.

동화 같은 시간이었다.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 있는 작은 시골 중학교에서 밤낮으로 아이들과 어울려 지냈다. 근무시간, 퇴근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선생님을 필요로



03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현재는 어떤가요?  
지금 이 순간에 늘 행복해야 합니다.

할 때면 언제나 그 곁을 지켰다. 늦은 시각에도 아이들을 옆에 끼고 부족한 공부를 가르쳤다. 진심이 통해서였을까. 선생님의 숙직 날이면 아이들은 도리어 선생님을 지켜드리겠다고 숙직실로 모여들었다.

**잘 가르치는 교사로 우뚝**

유병대 교장은 잘 가르치는 교사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도 멈추지 않았다. 당진중학교 근무 당시, 경력교사와 신규교사를 연결하는 ‘초보와 중견의 의기투합’이라는 동아리를 조직해 수업 나눔에 앞장섰다. 동아리 회원들은 당진 군내 전 교사를 대상으로 매달 수업 공개에 나서는 한편,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위해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학습지도에 매달렸다. 유명 강사를 초청해 연수를 실시하고 지역의 문화탐방이나 밤샘 토론회를 통해 교사들의 역량을 스스로 키워나갔다.

교사의 혁신은 학생들의 실력으로 이어졌다. 학력 향상과 동시에 학교폭력이 사라졌다. 유병대 교사가 지도한 수학영재 교육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충남과학고에 줄줄이 합격했다.

해마다 여러 명의 학생들이 과학고에 진학하자 ‘충남과학고 부속 당진중학교’라는 우스갯말이 나올 정도였다.

유병대 교장은 2005년 전문직에 들어선 이후 충남도 학력신장과 영재교육 등의 사업을 도맡았다. 어디에서나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쥐어짜는 열정으로 학력향상도 전국 1위, 영재교육우수지원청(홍성) 선정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다.

“제가 시골 중학교 출신이고 첫 발령 역시 소규모 중학교에서 시작한 탓인지 작은 학교에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교육을 마음껏 펼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 2012년 천북중학교에서 교장 공모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했고 원 없이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천북중학교와 유병대 교장은, 몸을 나누어가진 삼쌍둥이처럼 고락을 함께 했다. 유병대 교장의 교육적 역량을 총합한 천북중학교의 역사가 나날이 새롭게 기록되기 시작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실현**

천북중학교는 한때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많아 학력관리 중

- 03 유병대 교장은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김재동의 말을 풋말에 새겨 들고 매일 아침 교문에서 학생들을 맞는다. 그는 현재에서 늘 행복을 느끼자고 강조하면서 매순간 최선의 노력을 다짐하고 실천한다.
- 04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유병대 교장
- 05 각종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홍성여고

점학교라는 불명예를 안고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던 학교였다. 전교생 50여 명의 작은 학교는 ‘1000 BOOK’ 프로젝트(해마다 50권씩 20년간 1000권의 양서 읽기)를 비롯해 1인3악기 연주, 단계별 융합체험학습, 지역민과 함께 하는 스포츠활동, 봉사의 생활화 등을 안착시켜 나갔다.

“저의 교육 철학은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교육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천북중학교의 모든 프로그램에는 ‘전교생’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들어갑니다. 전교생 체험, 전교생 봉사, 전교생 스포츠 등 작은 학교의 특성을 살려 한 명도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참여해 기쁨을 나누자는 것이지요. 교육자란 한 명의 학생을 소중히 여기며 오직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유병대 교장은 학생들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발로 뛰며 지역사회와 기관, 이웃 학교의 화합과 협조를 이끌어냈다. 박토에서 생명을 길러내듯 쉽 없이 가꾸고 정성을 다한 시간이었다. 학교는 이우고 생기를 뿜으며 결실을 만들어냈다. 2014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천북중학교가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학교 가운데 교감이 없는 유일한 초미니 학교였다. 실사를 나온 심사위원들은 ‘동화 속 행복한 학교’라며 감동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어 2015 행복학교 박람회 통해 교육계에 화제를 부르며 ‘작은 학교의 큰 기적’을 선보였다.

“저에게 교육이란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시간들의 집합입니다. 매순간 최선을 다했고, 그것이 때론 나에게 다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 밤늦도록 가르쳐 과학고에 진학시켰던 제자가, 카이스트 학생이 되어 무보수로 내 아이의 수학 과외를 책임지겠다고 수개월간 애써주기도 했습니다. 천북중학교 시절엔 전학을 마다하고 날마다 3번이나 버스를 갈아타며 왕복 4시간을 등하교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정을 헤



04



05

아려 터미널에서 아이를 만나 차로 태워다 주었는데, 졸업식장에서 학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감사인사를 전해와 몽클하기도 하였지요. 또 학생들과 종종 봉사하러 가던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이 고마움의 뜻으로 손수 양말선물을 준비해 주셔서 벅찬 보람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했던 모든 순간이 그야말로 행복이었습니다.”

유병대 교장이 홍성여고에 부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나 벌써 여러 부문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 교장은 출발선에 다시 선 팽팽한 에너지를 품으며 명문고의 위상을 높일 것임을 각오를 내비친다. 여전히 그는 하고 싶은 일이 많다. 그러니 이제 2년 밖에 남지 않은 정년이 아쉽지는 않을까.

정년 이후의 계획을 묻자 의외의 답이 돌아온다. 퇴직하면 학교는 다시 뒤돌아보지 않겠다고. 다 쏟아놓고 가겠다는 이야기로 전해온다. ㉠

## 양경윤 수석교사의 '도덕과 하브루타 질문 수업'

# 질문으로 생각을 트고 대화로 세상을 연다

양경윤 수석교사의 수업 중심에는 늘 아이들이 있다. 수업의 질문을 만드는 것도, 그 질문에 대해 짝을 바꿔가며 열띤 토론을 하는 것도 모두 아이들의 몫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의 동시성과 함께 다양성이 발현된다. 아이들의 질문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생각하는 힘을 이끌어 내는 양 수석교사는 “질문으로 생각을 트고, 대화로 세상을 열며, 타인을 바라보며 ‘자신’을 알아가는 수업”이라고 소개한다.

교탁을 향해 ‘ㄷ’자로 앉은 창원 안계초등학교(교장 차유미) 6학년 학생들이 옆에 앉은 짝과 도덕 교과서 속의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나눈다. 사이버 욕설을 당하는 아이, 폭력을 당하는 아이 등등. 이 그림을 보며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번에는 교과서 속의 ‘동수의 일기’라는 글을 한 문장씩 짝과 번갈아가며 소리 내어 읽는다. 달리기에서 아쉽게 4등을 한 동수는 친구들로부터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달리를 못하니 밥이라도 많이 먹어라’는 말을 듣고 상처 받은 마음을 일기에 적었다. 모든 학생이 일기를 끝냈을 때, 양경윤 수석교사는 학생들에게 “그림과 글에 대해서 각각 한 가지씩 질문을 만들어 보라.”고 말한다.

### 우리가 만든 ‘핵심질문’으로 생각 확장

- “갈등이 커지면 왜 폭력으로 나타날까?”
- “장난이 어떻게 폭력이 될 수 있나?”
- “말로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상처는 얼마나 클까?”
- “동수는 왜 참기만 하고 속상한 마음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 “친구들은 왜 동수에게 마음 아픈 말을 했을까?”
- “폭력은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 “우리반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

“학급규칙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까?”  
 “즐거운 학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등등.  
 25명의 학생들이 2가지씩 쏟아내는 질문은 50여 가지. 이 중에서 중복되는 질문을 제외하고 몇 가지로 좁혀졌다. 이번에는 짝과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 이 과정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생각, 언어폭력, 친구에 대한 배려, 학급규칙 등 양 수석교사가 학생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모두 녹아있다. 교사는 이끌기만 할 뿐이다.  
 충분한 대화가 오고간 뒤에는 일정한 규칙에 의해 짝을 바꾼다. 이때 양 수석교사는 학생들에게 “반 친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는”이란 질문을 던졌다. 한 학생의 질문을 핵심질문으로 가져온 것이다. 질문공책에 3가지씩 자신의 생각을 적고 바뀐 짝과 또다시 대화를 이어나간다.  
 홍서연 학생은 별명 부르기, 줄임말 사용, 비속어 사용을 적었다. 허인성 학생은 별명을 많이 부른다, 공격적인 말투를 사용한다, 초성으로 답한다, 줄임말을 자주 사용한다 등을 기록했다. 한 학생은 ‘내가 군밤이란 별명으로 놀림을 받는다.’ ‘친구 ○○이는 키가 작아 멀치라고 놀림을 받는다.’며 별명으로 인한 속상함을 드러냈다. 짝과 별명으로 놀림을 당했을 때의 기분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비속어를 들었을 때의 불쾌한 감정들을 서로 공유한다. 밖에서 보는 교실은 왁자지껄하지만

- 01 교과서 속의 그림과 텍스트를 읽고 질문을 만든다.
- 02 하브루타 질문 수업은 짝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짧은 시간 내에 알게 되고 학급 친구들의 생각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사고의 점프가 일어난다. 한 학생이 짝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01



02



- 03 평화로운 교실을 만들기 위해 아이들이 각자 정한 언어규칙을 들고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 04 “팩트폭력이 뭐야?”라고 묻는 양경윤 수석교사에게 한 아이가 활짝 웃으며 설명하고 있다.
- 05 아이들이 만든 질문을 퍼즐 조각 맞추듯 주제와 연결하며 수업을 완성해 나가는 양경윤 수석교사
- 06 “표준말을 사용한다.”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며 말한다.” 등등 평화로운 교실을 위해 아이들이 언어 규칙을 정해 칠판에 붙이고 있다.



그 속에서 짝과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띤 대화를 이어가는 중이다.

교실을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던 양 수석교사는 학생들의 대화가 끝나갈 즈음, 또 다른 학생의 질문이었던 “평화로운 교실을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언어규칙을 만들어볼 것”을 제안했다. 이해원 학생은 “제가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서 욕 할 때가 있어요. 친구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이런 말을 못했는데, 오늘 짝에게 이야기 했어요. 앞으로는 욕하기 전에 제 감정을 다듬고 욕을 자제할 거예요.”라고 말한다.

전인호 학생은 “달리기를 못한다는 친구의 말에 동수가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달리기를 못하는 친구에게 똑같은 말을 무심코 한 적이 있어요. 그땐 그 말이 상처를 주는 말인지 몰랐는데, 오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동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라고 설명한다.

**“질문과 대화를 통해 사고의 점프가 일어난다”**

양경윤 수석교사는 질문과 대화가 넘쳐나는 하브루타 수업에 대해 “질문으로 생각을 트고, 대화로 세상을 열며, 타인을 바라보며 ‘자신’을 바로 알아가는 수업”이라고 소개했다.

하브루타 질문 수업의 장점은 수업 시간에 학습의 동시성과 함께 다양성이 발현된다는 점이다.

“사물을 다르게 보려고 노력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제한된 생각의 틀과 자신의 성향, 문화적 지능 등의 한계로 인해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질문 수업은 짝과 대화하면서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짧은 시간 내에 알게 되고, 학급 친구들의 생각들이 동시에 다양하게 쏟아져 나와요. 다양한 친구들의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사고의 점프가 일어나는 거죠.”

특히 하브루타 질문 수업은 질문에 머뭇거리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짝의 이야기를 듣고 짝의 질문을 그대로 인용하기도 하고 짝의 질문으로부터 자신의 질문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질문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모방은 곧 학습이 된다. 여기에 짝을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자연스럽게 교우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하브루타 질문 수업의 효과가 인정되어 양 수석교사는 인성교육 중심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업이 아이에게 말을 걸다-질문 중심 하브루타로 만들어가는 인성중심 수업’으로 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양경윤 수석교사는 하브루타 질문 수업을 더 많은 교사들과 공유하고자 2015년부터 DR(Dialogic Reading)하브루타 교육연구회를 결성하여 수업연구를 해오고 있다. 3명의 회원으로 시작된 연구회는 현재 80여 명으로 늘었다. 안계초는 물론이고 9개 지역 교사들이 격주에 한 번씩 모여 수업연구를 해오고 있다. 학습 대화, 질문이 살아 있는 교실이야기로 원격연수 강의를 진행 중인 양경윤 수석교사는 교내외에 수시로 수업을 공개해 오고 있다.

“안계초에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질문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매 시간 교육현장을 몸으로 느끼며 더 효과적인 수업, 더 쉬운 수업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양경윤 교사의**

**질문 수업을 위한 몇 가지 노하우**



**교과서 활용하기**

하브루타 질문 수업에서 가장 큰 고민은 학습 자료이다. 단위 수업 시간마다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 주어진 자료인 교과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질문 수업에서는 교과서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을 활용하여 질문을 만들어도 학습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짝과 소리 내어 읽기**

텍스트는 짝과 대화하듯이 한 문장씩 주고받으며 소리 내어 읽기를 권한다. 여러 문장이 들어 있는 한 단락을 이상을 혼자 계속 읽는 것보다 자주 번갈아 읽는 것이 집중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된다. 소리 내어 읽는 것은 질문 만들기 전 단계로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그림 질문 만들기**

도식화된 이미지는 질문 수업을 위한 아주 좋은 자료가 된다. 그림을 살펴보는 활동만으로도 학생들의 흥미를 더 많이 끌 수 있으며 동기유발 효과가 있다. 텍스트보다 학습 주제에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으며, 다른 친구들의 질문을 통해 다른 각도로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면서 세밀하게 보는 힘도 기를 수 있다.

**질문을 학습주제와 연결하기**

질문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단위 수업의 학습 효율을 고려했을 때 1인당 3~5개가 적당하다. 물론 이 질문을 모두 시간 내에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깊이 있는 생각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질문이 최소한 3~5개 정도는 필요하다.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하게 하고, 스스로 의문점을 해결하기도 한다. 너무 많은 질문은 수업을 방해하기 때문에 질문을 초점화하여 정리한다. 자신이 만든 질문 중에서 가장 궁금한 것을 선택하게 하거나, 비슷한 것들을 유목화하여 5~6가지로 압축한다.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을 초점화하는 기능이 교사의 핵심질문이 되는 것이다.

**이쯤 질문으로 연결하라**

교사의 관점에서 학습주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의미 없는 질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질문 그 자체보다는 질문을 보는 관점의 차이로 봐야 한다. 교사는 늘 제한된 시간에 쫓기다 보니 자꾸만 상황이나 내용에 상관없이 지름길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다. 너무 멀리 돌아가려고 하는 질문들을 다시 교실 수업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교사의 몫이다. 질문 퍼즐을 배치하고 연결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질문공책 쓰기**

질문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업에 질문을 활용하기 위해서 질문공책을 만들었다. 질문공책이라고 해서 질문만 작성하는 것은 아니다. 학습에 대한 배움 글쓰기 공책으로 활용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함께한다. 질문으로 생각을 열고 대화로 사고를 확장하였다고 해도 처음에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연하다. 일주일 정도는 한 줄 쓰기에 만족하고 익숙해지면 3~4줄 쓰기로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좋다.

## 대구왕선초등학교 '드라마 교육'

# 놀이가 '배움'이 되는 연극놀이 온몸으로 표현하며 끼 발산

희극과 연극을 의미하는 드라마(Drama)로 세상을 배운다. 대구왕선초등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드라마 교육'으로 즐거운 배움을 실천하고 있다. 아이들은 극중 인물을 통해 '나'를 만나고,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끼를 발산한다.



“몸짓으로 자신의 꿈을 표현해 보세요.”  
지난 6월 13일 대구왕선초등학교(교장 이경숙)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뮤지컬 동아리 학생 20여 명이 예술강사의 말에 다양한 몸짓을 선보인다. 교실 바닥에 놓인 색색의 천들은 아이들의 표현을 도울 도구들이다. 4~5명이 한 조가 되어 5분간 열띤 논의를 주고받더니 그럴싸한 꿈 몸짓을 연출한다.

수갑처럼 두 손을 천으로 묶어 표현한 '경찰관', 푸른 천을 드레스처럼 몸에 둘러 '모델'을 따라하기도 한다. 5명이 한 명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착석하며 판사, 변호사, 검사, 피고인, 피해자를 표현한 남학생 모듬의 표현 활동은 가장 많은 오답을 배출한 난제로 꼽혔다.

이선영 교육과정기획 부장교사는 “뮤지컬 대본 연습 전에 어색함을 떨치는 시간이다. 보면 다들 표정이 밝다. 학생들은 공 튀기기, 몸짓 표현하기 등으로 서로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연습에 임한다.”며 “극단 배우인 예술강사와 교사의 협력수업으로 이뤄진다.”고 말한다.

5~6학년은 희망학생들이 모여 뮤지컬을 배운다면, 1~4학년은 학급별로 연극놀이에 참여한다. 매주 2차

시 블록타임으로 학급 시간표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는데, 아이들이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이다.

### 연극놀이 3년째... 표정이 밝아진 아이들

그 시각, 2학년 2반 교실 문을 열자 모두들 왁자지껄 떠들썩하다. 책상을 모두 복도에 내놓고 둥글게 둘러 앉아 연극놀이에 한창이다.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 담임교사가 “레디! 액션~”을 외치자 채연이가 일어나 환한 얼굴로 팔짝팔짝 뛰다. 아이들이 한목소리로 “신나는 마음”이라고 답하자 이어 또 다른 아이가 ‘즐거운 마음’, ‘화난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한다. 수줍음이 많은 아이도 이 시간만큼은 친구들을 따라 몸짓을 지으며 크게 웃음을 터트린다. “평소 말도 잘 안 하는 아이가 친구들과 맘껏 웃고 신나게 몸을 움직인다.”는 이선영 부장교사는 “소극적이고 조용한 학생들조차도 연극 시간을 싫어하는 학생들이 없을 정도”라고 덧붙인다.



대구왕선초는 3년 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드라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문소양교육으로 독서, 한자, 인문토론을 진행하면서 연극



을 접목해 재미를 붙여 넣었다. 이경숙 교장은 7년 전부터 교육 연극을 학교현장에 도입하며 그 효과를 톡톡히 봤다.

“교장으로 처음 부임한 학교는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이 다수였습니다. 결손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한 명의 낙오자나 구경꾼 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다 발견한 교육이 연극놀이이고 드라마 교육입니다. 연극놀이 후 아이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학교는 더없이 즐거워졌습니다. 그때 경험을 토대로 현재 교육과정과 연극놀이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정착시켜나가고 있습니다.”

### 모두를 위한 '구경꾼 없는 교육'으로

교과활동 시간에는 관련 교과와 연계해 연극놀이를 수업시간에 도입하고, 진로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형극 관람,

01 1~4학년은 학급별로 연극놀이에 참여한다. 몸짓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2학년 2반 아이들  
02 대본 연습 중인 5~6학년 뮤지컬 동아리



뮤지컬 배우와의 만남 등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 전 교사가 연극연수를 받고, 달성군청 지원으로 예술교육협회나 콩나물극단 전문 예술강사와 함께 아이들을 지도한다. 연말에는 인문학 기반의 연극놀이를 주제로 한 주간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인문학 이야기를 희곡으로 바꿔쓰기(국어), 창작 희곡으로 연속 만화 만들기(미술) 등의 활동은 놀이를 ‘배움’으로 이끈다.

재능자랑 발표회인 ‘거리 버스킹’과 학예발표회인 ‘왕선 예술제’는 아이들이 맘껏 재능을 펼칠 무대다. 유쾌한 학교생활을 보여주는 ‘왕선 막내 1학년 생활’과 꿈을 찾는 여정을 그린

‘Our dreams’에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녹아있다. 지난해 처음 열린 대구교육연극축제에서는 인근 학교 학생들과 학생극단으로 시험 점수에 집착하는 학생들의 현실을 그린 ‘No, No!’ 공연을 했다. 올해도 창체 동아리 ‘뮤지컬로 찾아가는 나의 꿈’ 부에서 ‘마법처럼’ 공연을 종합 예술제와 지역주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 교장은 말한다.

“교육연극은 재미있고 신나는 활동입니다. 온몸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지요. 종합예술인 드라마를 통해 창의성과 인성도 자연스럽게 길러지고 있습니다.”



**이경숙 교장이 전하는 드라마 교육 노하우! Tip**

**체험을 통한 과정중심의 연극으로!**

관객에게 보여주기 위해 완벽한 공연예술작품을 만드는 일보다 체험을 통한 과정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드라마 교육이 연극놀이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몸짓, 목소리로 에너지를 맘껏 발산할 수 있어야 한다.

**표현이 서툰 아이는 기다려준다**

유달리 소극적이고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스스로 마음을 열고 참여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 대신 좀 더 빨리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작은 발전도 칭찬해 주고, 혼자보다는 친구나 모둠과 어울려 표현할 수 있도록 스캐폴딩(Scaffolding, 학습자에게 적절한 인지적 도움과 안내를 제공해 학습을 촉진시키는 전략)을 제공한다.

**Step by Step!**

처음부터 대본과 상황을 주고 연극을 해보라 하면 학생뿐 아니라 어른들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 학생들이 드라마 교육에 참여하기까지 마음을 열고, 사소한 감정표현, 상황표현 등을 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야 연극이나 뮤지컬 무대를 성공적으로 꾸밀 수 있다.

**학년·학년·학교단위 발표회를 계획하라**

학년, 학년, 학교 단위의 발표회를 계획하면 학생들은 재미를 넘어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친구가 가장 좋은 예시로!**

교사가 예시를 보여주는 건 활동의 처음단계에서 꼭 필요하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와 닿는 예시는 친구들의 모습이다. 교사는 표현 활동을 잘하는 학생의 모습을 발견하면 칭찬하고, 다른 학생들 앞에서 다시 표현하도록 해 서로 배우며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사연수는 필수!**

드라마 교육에서 가장 힘든 점은 표현 활동에 어려움을 갖는 소극적인 학생들이다. 이러한 학생들을 잘 끌어안고 가야 한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성, 창의성, 엉뚱함을 잘 포용해줘야 한다. 그러다보니 드라마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나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사전에 교사 대상 연수를 반드시 실시하고, 프로그램 계획 시 교사의 희망을 반영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행복놀이**

행복놀이는 친구와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배움이 ‘놀이처럼 즐겁게 여겨지는 대구왕선초의 교육과정을 말한다. 연극놀이 또한 행복놀이의 일환으로, 행복놀이는 주로 4개 영역(들머리, 탐구, 게임, 연극)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분석을 통해 놀이수업에 적용하고 있다. 학교는 매주 2회 블록타임으로 놀이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교구·게임 등을 비치한 놀이교실인 ‘놀이마루’ 등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서로 마음을 열기 위한 아이스브레이킹 활동. 공 튕기기, 몸짓으로 꿈 표현하기

김민영(6학년)

이서윤(6학년)

**“극중 인물이 바로 나”**

6학년 김민영(13) 양은 지난해 이어 올 연말 또다시 뮤지컬 무대에 오른다. 극 중 인물이 되어 그 삶의 주인공으로 자신의 감정을 맘껏 발산했던 경험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작가의 꿈을 키우는 인물이 엄마의 반대를 이겨내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여정은 자신의 모습과도 닮아 있다고 했다.

“극 중 인물의 마음이 크게 와 닿았어요. 저도 고민을 들어주는 일을 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다른 일이 더 좋다고 하시거든요. 어떨 땐 화가 나고 속상한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교우관계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돕는 역할이다. 일기에 쓰면 그대로 실현되는 마법의 샤프심을 친구에게 전하는 전학생으로, 주인공은 전학생의 도움을 받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된다. 김 양은 “반에서도 극 중 인물인 전학생처럼 생활하면 좋겠다.”며 “힘들고 어려운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말한다.

**“무대 위 자신감이 생겼어요!”**

“무대에 설 때 자신감이 생겼어요. 친구들과 대본을 리딩하는 과정도 재미있고, 역할을 정할 때 다양한 생각도 할 수 있어서 좋아요.”

6학년 이서윤(13) 양은 올해 뮤지컬 배우에 도전한다. 극 중 주인공 언니 역할을 맡았다. 주인공 수연이는 평소 불평불만이 많아 친구들이 싫어하는 아이다. 수연의 언니는 동생이 어려움을 겪는 걸 보고 따뜻한 조언을 하며 곁을 지켜준다.

“언니와 자주 다투면서 가끔 미워도 했어요. 그런데 주인공 언니 역할을 하면서 언니의 기분은 어땠을까 생각하게 돼요.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 앞으로는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윤이의 꿈은 개그우먼이다. 아이들을 재미있게 만들지만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주눅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뮤지컬 무대는 그런 서윤이에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자기 말을 다하는 좋은 연습 기회가 되고 있다. “대사가 많이 없어도 좋다. 배우면서 즐겁다.”는 서윤이는 “앞으로도 무대에 꼭 서고 싶다.”며 웃는다. ㉠

### 부천상록학교 전공과 교사

# 사기범 검거 도와 지적장애 제자 지킨 13인의 영웅들

SNS를 통해 지적장애인 학생들을 피어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도된 친절함을 의심하지 않고 남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지적장애인을 노린 계획된 범죄였다. 이번 사건에는 악랄한 범죄자의 희생양이 될 뻔한 지적장애 제자들을 위해 고군분투한 교사들이 있었다. 이들은 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부천상록학교(교장 임중하) 전공과 13명의 교사들이다.

#### 범죄의 희생양이 된 장애제자를 위한 고군분투

부천상록학교는 유·초·중·고·전공과정의 지적장애 특수교육기관으로 42학급의 260여 명이 재학 중이다. 취업반과 생활반 2개 학급으로 운영되는 전공과에서는 18명의 학생들이 실생활 전반과 더불어 취업 현장에서의 적응훈련 교육을 받고 있다. 지적장애인으로서는 서로 친구사이인 김 모 학생과 이 모 학생은 이 학교 전공과 학생들로, SNS로 접근한 21살 백 모씨의 4명으로부터 “취직을 시켜주겠다. 복사나 가벼운 물건을 옮겨주는 일을 하고 월 17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회사이다.”라는

꼬임에 3월 15일 저녁, 집을 나갔다고 한다.

학생들로부터 연락이 두절되자 교사들은 부모들에게 실종 신고를 독려하고, 경찰조사를 도우며 학생들과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백 모씨 일당들은 범행기간 내내 두 피해 학생들에게 회사 기숙사가 공사 중이라며 모텔에 투숙시켜 놓고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해도 찾을 수 없도록 손을 쓴 후, 학생들의 현금인출카드와 휴대폰을 모두 압수해 도망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실종신고 후 경찰의 수사를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핸드폰으로 가족들과 경찰에게 자신들은 잘 있다며 스스로 연락하게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하지만 그들의 치밀함도 열정적인 교사들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었다. 실종 10일째인 3월 23일 전공과 교사 13명은 퇴근도 잊은 채, 마지막으로 휴대폰의 위치가 잡힌 강남역삼동 일대에 전단지지를 돌리며 수소문해 나섰다.

“경찰에서는 정황상 납치나 구금이 아닌 단순 가출로 판단했기에 적극적인 수사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희 전공과 선생님들은 성인장애인이라는 점을 악용한 범죄라는데 무

게를 두고 초기에 찾아야한다고 판단했어요. 비상 탐색조를 꾸려 역삼역, 강남역, 신논현역 등으로 담당구역을 편성하여 탐색을 계획하여 학생들이 머물 곳으로 예상되는 짬질방, PC방, 호프집 등을 다 뒤져볼 생각이었어요.” 인터뷰에 응해준 전공과 최윤정 부장교사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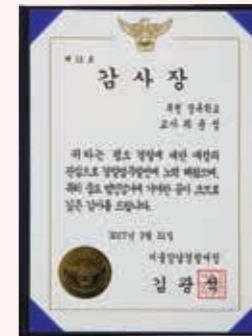
교사들의 애타는 마음에 화답하듯 이 모 학생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시저로 편하게 자고 일어났다는 답장을 받고 강남속박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조를 편성해 탐색을 시작했다.

결국 전단지 사진으로 “오전까지 머물다 R호텔로 성인 남성 2~3명과 함께 이동했다.”는 M호텔 직원의 제보를 받고 R호텔로 교사 3명이 방문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학교에 알렸다.

#### 비상탐색조 꾸려 강남 일대 숙박업소 조사

신고 후 강남역삼지구대에서 나온 경찰들과 교사들은 계속 감시하며 피해 학생들을 수색하던 중 다음 날인 3월 24일, 학생들을 찾았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담임교사(손정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다. 학생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제야 제대로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다.”라며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에 숙연해졌다.

납치 열흘 동안 백 씨 등은 학생들을 유인해 휴대전화 7대를 개통하고, 대부업체에서 전화대출을 받게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학생들 명의로 대출받은 돈에다 통장에 있던 돈까지 2천만 원 가량을 빼앗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학생들에게 더 많은 대출을 받지 않으면 목포, 일본 등으로 팔아넘길 수



서울강남경찰서로부터 받은 감사장

있으니 잘 하라는 협박을 가하기도 했다. 건잡을 수 없이 피해가 커질 수 있었던 사건을 조기에

해결하고 학생들을 안전하게 가정으로 돌아가게 한 원동력은 바로 교사들의 ‘사랑의 힘’이 아니었을까?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최윤정 부장교사가 대표로 서울강남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상금은 전액 상록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졸업생 사후 지도로 연락해보니 SNS로 접근해 친밀감을 형성한 후 사기를 치려는 시도가 또 있었습니다. 정말 간담이 서늘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사람을 쉽게 믿는 지적장애 학생들을 노리는 신종 사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와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재를 마치는 자리에서 나온 전공과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마주하고 보니,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힘이, 용기가 생겼는지 궁금하다. “누구보다 우리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잖아요.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전공과 선생님들이 뽕뽕 뭉쳤죠.” 범죄자들의 수법이 날로 치밀하고 악랄해지고 있다. 하지만 교사들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장애 제자를 지키는 마지막 희망이 되고 있다. ②



강주현 선생님

류민정 선생님

윤미경 선생님

김현정 선생님

최윤정 선생님

손정은 선생님



신슬기 선생님

유효정 선생님

장세환 선생님

박민하 선생님

김순옥 선생님

장혜경 선생님

나리 선생님

## 교실에서 무더위를 날리는 놀이

# '가위바위보'로 삼국통일 해볼까



### 이런 때 활용하면 좋아요

7월에 들어서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학생들은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만, 막상 더위에 지칠 아이들을 생각하며 망설이지는 않으세요?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여 공부한 것도 복습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가위바위보 놀이를 추천합니다.



### 놀이 방법을 알아봐요

- ① 시작과 동시에 교실을 돌아다니며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인사를 합니다. 교사가 종이나 박수 등으로 신호를 주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 ②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당신의 신하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그 사람 뒤를 따라 다니며 한 팀이 됩니다. 팀으로 돌아다니다가, 신호에 따라 팀끼리 만나 인사를 하고 팀전원이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대표부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은 계속하는 방식입니다.
- ③ 패배한 팀은 이긴 팀의 꼬리에 붙어 팀원이 됩니다. 만약 팀원의 수가 다른 경우 동등하게 가위바위보의 기회를 주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2명인 팀과 4명인 팀이 가위바위보를 하면 2명인 팀은 2번씩의 기회가 있습니다.
- ④ 이 행동을 반복하여 최종 남은 세 팀은 가위바위보를 통해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으로 나누어 나라를 결성하고 선두에 있던 학생이 왕이 됩니다. 한 명씩 출전하여 세 나라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가위바위보를 하는 국가 대항전을 실시합니다. 팀원이 가위바위보에서 모두 지면 그 나라는 패하게 되며, 끝까지 남아 있는 나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 이런 효과가 있어요

- ① 가위바위보를 변형한 놀이입니다. 신체 능력이 아닌 운만으로도 자신이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흥미로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 ② 이 놀이는 학급 상황에 맞게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각국의 대표에게 하나의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구려 왕은 한 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 신라 왕은 한 번 더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는 능력, 백제 왕은 강제로 한 명을 가위바위보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 놀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7월에 하는 이유

- ① 7월에 들어서면서 날씨가 많이 더워집니다. 폭염에 야외활동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활동으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풀어 줄 수 있습니다.
- ② 5학년이라면 1학기에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삼국의 내용을 다뤄보는 것은 어떨까요? 만약 고구려가 우승을 했다면 '실제로 고구려가 통일을 했다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국어 논술 수업 등과 응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응용해 보세요!

#### 열매 가위바위보

- ① 개인으로 하는 놀이입니다. 맨 처음 모든 친구들은 씨앗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위바위보를 이길 때마다 한 단계씩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단계] 씨앗(머리 위로 원을 그리며 '씨앗', '씨앗' 외치고 다닙니다.)
- [2단계] 떡잎(양쪽 팔을 어깨에 잡고 들썩거리며 '떡잎', '떡잎'이라고 외칩니다.)
- [3단계] 줄기(두 손을 모아 머리 위로 세우듯이 쪽쪽 뻗으며 '줄기', '줄기' 외치고 다닙니다.)
- [4단계] 꽃(두 손을 모아 턱을 받치듯이 하여 '꽃', '꽃'하고 다닙니다.)
- [5단계] 열매(최종 단계로 씨익 웃으며 자리에 앉아 다른 친구들을 구경합니다.)



- ② 열매 가위바위보는 같은 단계인 사람하고만 가위바위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긴 사람은 한 단계 위로, 진 사람은 한 단계 아래로 떨어집니다. 씨앗은 지더라도 더 내려가지 않고 씨앗입니다.
- ③ 씨앗, 떡잎, 줄기, 꽃인 친구가 각각 1명씩 남으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 이런 효과가 있어요

- ① 준비 없이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다른 동작으로 변형하여 진행하기 좋습니다. 각반의 개성 있는 동작을 추가해서 놀이를 해도 즐겁습니다.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수업자료지원단 함께 연구하고 나누는 선생님!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은 2004년 3월에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자료를 함께 나누고, 같이 연구하고자 서울교육포털(SSEM)을 개통하였다. SSEM은 학교급 및 교과별로 구성된 수업자료지원단 선생님이 직접 만든 우수 교육자료를 탑재·공유하고, 연구학교·연구대회 보고서, 정책연구 자료 등을 통해 학교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연구하는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 운영의 중심에 있는 수업자료지원단은 수업, 평가, 연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에는 초(21명), 중(7명), 고(11명) 총 39명의 현직 교사가 수업자료지원단으로 선발되어 활동 중이다. 수업자료지원단은 교육정책의 변화 및 교육과정 개정 시 그에 맞는 학교교육과정의 수립, 평가 계획, 시수 조정, 수업과정안 선두 작성, 차시별 교육자료 등을 개발하여 SSEM에 올려 새로운 교육과정과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되도록 하고 있다. 수업자료지원단은 좀 더 좋은 수업자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며 연말에는 평가회를 통해 수정 보완할 사항을 찾아내어 반영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을 지도하다 필요한 자료나 업무에 필요한 형식이 있으면 SSEM에 들어와 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한다. 신규교사들은 학교생활을 SSEM 덕분에 헤매지 않고 잘 적응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말하고 있다.

앞으로도 수업자료지원단은 미래지능정보사회 및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융합 미래교육이 학교현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가치가 있고 교육현장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매력적인 수업지원 및 업무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 예로, 2016년 9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영상특'은 학교의 호응도가 높은 콘텐츠이다. 수업에서 동기유발 및 수업지원 자료로



수업자료지원단 연수 모습



서울교육포털 홈페이지 화면

다양하게 활용 할 수 있는 용어, 개념, 내용 등을 5분 내외로 제작한 동영상 자료이다. 교사가 아이 템 선정부터 원고작성, 촬영, 편집까지 직접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 간다. 현재까지 총60편을 SSEM에 제공하고 있으며 조회 수가 3,500

여 건으로 학교현장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다. 2017년에는 서울교육포털(SSEM) 디자인 및 메뉴 개편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누구나 들어오고 싶은 교육의 장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교육을 향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활동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SSEM의 수업자료지원단 선생님들이 있어 서울교육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

글. 양묘생 명예기자

- ㉠ 지역 : 서울
- ㉡ 대상 : 유·초·중·고·특수 교사
- ☆ 대표 : 주니어 연구사 ☎(02)311-1357

## 공립유치원교사 수업연구회 '고양 아띠어울림 교육' 진정한 배움이 있는 수업 실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유명한 속담이 있다. 이는 한 명의 어린이를 잘 키워내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힘을 모아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유아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고양시 공립유치원교사들의 수업연구회가 있다. 바로 '고양 아띠어울림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열정이 따끈따끈한 모임이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소속 공립유치원교사 29명과 수석교사 1명, 장학사 1명이 모여 만든 수업연구회로 설립유형별로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 설립규모별로 1학급, 2학급, 3학급 등 여러 규모의 유치원 교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 모임은 올해 4월 첫모임을 시작으로 매달 2회씩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모바일 단체 카페를 통해 수시로 교육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4월 첫모임에서 유치원간 교육공동체를 구축하여 참여와 소통, 개방과 협력, 공감과 지원으로 함께 혁신교육문화를 만들어가는 협력교육자가 되어보자는 취지로 앞으로의 일정을 의논하였다. 전체 모임 안에 유치원 교육대상 연령 만3세, 만4세, 만5세 반 담당교사들로 각각 소그룹을 결성하여 전체모임과 소그룹 모



임시간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매번 모임마다 창의적인 수업계획안을 공유하고 더 나은 수업방향을 의논하며 교사들마다 자신의 수업 사진 및 동영상 등을 다함께 공유하며 긍정적인 피드백 경험을 가진다. 서로의 수업에 대한 피드백 시간은 경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가 평등한 교육전문가라는 시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

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교실현장에서 실제 진행해보고 훌륭했던 활동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때는 모두가 반짝이는 눈빛으로 집중하고, 잊기 않기 위해 필기하는 열정적인 모습들이 보인다. 또한 한 유치원 현장에서 힘들었던 일을 털어놓으면 동료교사들이 하나 둘 위로의 말로 따뜻하게 토닥여주는 훈훈한 힐링 티타임을 갖기도 한다. 그러다보면 정해진 모임시간 3시간이 금방 지나가버린다. 고양교육지원청 유아교육 담당 이은주 장학사는 "유치원 교사들 간에 소통과 협력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임을 적극 지원합니다. 활발한 교육정보를 교류하면서 선생님들의 사기 진작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모임을 적극 지지하였다.

고양 아띠어울림 교육의 회장인 풍산초병설유치원 김은지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진정한 감동이 있는 배움 중심 수업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이를 통해 유아들이 더 행복한 교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을 잘 키우는 것은 참으로 가치있는 일이다.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유아들에게 아이다음과 행복을 되찾아주기 위해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이다. ㉡

글. 김효은 명예기자

- ㉠ 지역 : 경기 고양
- ㉡ 대상 : 유치원 교사
- ☆ 대표 : 김은지 풍산초병설유치원 교사 ☎(031)908-8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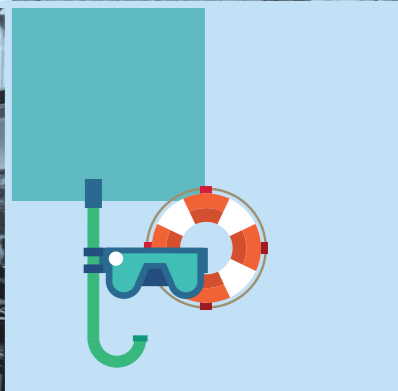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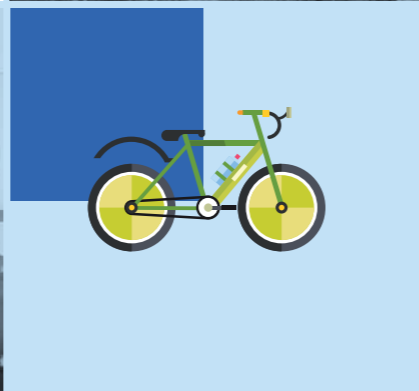




# 참다운 나를 발견하는 여름방학 진로체험



여름방학 풍경이 달라지고 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영어캠프, 학원 등등 방학 때면 더욱 바쁜 시간을 보내던 학생들 사이에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이를 찾아 나서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학생들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할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탐색한다.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돕기 위한 진로체험인증기관의 우수 프로그램 및 대학생이 제안하는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내는 방법, 교육부의 진로정책 등을 소개한다.



01

“몰입의 경험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02

검증된 기관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해볼까

03

대학생이 제안하는 나의 초·중등 방학생활

04

학생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진로체험 활성화 정책

## “몰입의 경험을 통해 나를 발견하는 시간으로”

글 서준호 광주 신창초등학교 교사

어느 날, 초등학교 때 제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만에 연락을 한 제자는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을 마쳐가는 중이었지요. 진로 결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대학교를 가야 할지, 의대를 가야 할지 오랫동안 고민 중이라고 하더군요. 저와 지냈던 초등학생 시절이 좋았다면서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저는 답을 쉽게 할 수 없었지요. 같은 곳을 바라보지만 각자 다른 눈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같은 경험에도 각자 다른 추억을 갖게 되는 것처럼 제 관점에서만 이야기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교실에서 하루를 보내 보고 그 다음 날엔 병원에서 하루를 보내보라고 제안했습니다. 교실에서 아이들과 보내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과 환자와 보내는 그 모든 경험이 도움이 될 거란 생각에서였지요.

### 방학, ‘사람과의 만남’에 시간을 보내라

제자는 정말 제 교실에서 아침부터 퇴근까지 저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재미있게 공부도 하고 여러 놀이를 하는 모습을 뒤에서 꼼꼼히 바라보더군요. 아이들이 티격태격할 때면 중재하기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을 훈계하는 모습도 보고, 저와 함께 급식실에서 밥을 먹으며 보조교사처럼 옆에 붙어 생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많은 질문을 저에게 건넸고, 여러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엔 병원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그 제자는 그 경험을 토대로 교육대학교로 진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구나 미래를 생각하며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미래는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선택에 대해 불확실함이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불안감은 우리 마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제 제자도 그랬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틀간의 ‘경험’은 조금 더 자신의 미래를 선명하게 그렸고, 조금 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은 우리에게 조금 더 현명한 눈과 불안감을 다독이는 힘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긴 시간 동안의 경험, 그리고 깊은 경험, 여러 경험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번 방학은 경험을 쌓고, 경험을 사는 쪽으로 보내면 어떨까요? 어떤 경험이든 좋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알아차리게 된다면 더 큰 행복을 만날 거란 생각을 합니다.

### 어떤 경험을 할 때 나의 심장은 두근거리는가?

이번 방학은 경험을 쌓고, 경험을 사는 쪽으로 보내보면 어떨까요? 어떤 경험이든 좋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일에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알아차리게 된다면, 내가 무엇을 평생 하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되면 더 큰 행복을 만날 거란 생각을 합니다. 학기 중에 하지 못했던 긴 시간이 필요한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몰입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 더 이야기 해드리면, 제가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던 시절 제자 중 일부는 제 영향을 받아 음대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을 제작하던 시절 제자 중 일부는 제 영향을 받아 대학로에서 일하거나 연극영화과로 진학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미친 영향이라니 책임감이 들고 쑥스럽기도 하지만 정신이 번쩍 듭니다. 하지만 저와 함께 한 시간이 즐거웠다는, 가르치는 제 모습에서 행복을 느껴서 더 관심 두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사람과 만남도 중요하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저 또한 성장 과정 속에서 여러 만남과 배움 속에서 음악과 연극 분야의 경험을 쌓았으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방학동안 ‘사람과의 만남’에도 시간을 보내라고 제안합니다.

### 여름방학을 학원과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리지 않길

모든 경험을 직접 할 수 없기에 미리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좌절, 성공, 행복, 슬픔 사람의 경험담 속에서 우린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고, 멘토가 생겨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는 마음도 생기곤 합니다.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심장이 두근거리려는 분야의 사람을 만나면서 또 다른 경험을 쌓아가길 바랍니다. 여름방학을 학원과 스마트폰으로 잃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경험’을 통해 행복한 나를 발견하길 바라고, 조금 더 근사한 나로 조각하고, 방학을 조금 더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②



서준호 선생님은 광주신창초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며, 놀이 전문가, 심리치료사로 활동 중이다. 대학원에서 무용연극치료를 전공했으며, 아이스크림 원격연수원에서 갈갈이생의 신나는 교실놀이, 갈갈이생의 신나는 연극놀이, 초내공 연극 놀이터 등을 강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서준호 선생님의 마음 흔들기』, 『서준호 선생님의 교실놀이백과 239』 등 다수가 있다.



## 재미와 의미를 동시에... 시청자미디어재단

# 검증된 기관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해볼까

신나는 여름방학, 검증된 진로체험인증기관에서 진로체험 해보는 것은 어떨까?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체험의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 총1,316개의 체험처(기관)에서 교육부 인증을 받았다.

우수 진로체험기관으로 정평이 난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시청자가 미디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방송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디어 꿈나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05년 부산센터를 시작으로 2015년에는 서울센터, 2016년에는 울산센터를 개소하여 현재 전국에 7개의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운영 중이다. 2006년부터 70만 명이 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미디어교육을 진행, 자유학기제 우수기관 표창, 교육기부 체험기관 우수기관으로 인증을 받았다.

### “레디~ 액션!” 이곳은 학교미디어교육 현장

- #1 어떤 사람이 캔을 바닥에 버리고 밟고 지나간다.
- #2 쓰레기통의 페달을 밟고 캔을 버린다.
- #3 보일러의 온도를 높이 올린다.
- #4 옷을 두껍게 입고 지퍼를 올린다.
- #5 일회용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고 걸어간다.
- #6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걸어간다.
- #7 한 사람을 바스트 샷으로 찍고 점점 멀어져서  
마지막엔 모두 나란히 서서 뒤를 돌아본다.
- #8 절반은 일회용 컵, 절반은 텀블러를 들고 있다.

환경보호 공익광고를 촬영하고 있는 이 학생들은 경기 갈매중학교(교장 이영숙) UCC영상제작반 학생들이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로부터 장비와 강사를 지원받아 1학기 동안 12회의 미디어교육을 진행 중이다. 6월 15일, 이날은 그동안 미디어교육을 통해 완성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보급형)캐논 R62 카메라와 스마트폰으로 영상촬영을 하는 날. 게임 형식의 학교폭력 근절 영상을 촬영하는 학생에서부터 혈액형별 태도 분석 영상, 패러디 뮤직비디오 영상, 공익광고, 메이킹 필름 제작 등 각자의 주제에 맞춰 촬영이 한창이다.

전지우 학생은 “처음엔 막연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미디어교육을 받으면서 장비 다루는 방법과 영상을 편집하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영상을 직접 기획하고 촬영해 작품으로 만든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어요.”라고 말한다. 원활한 촬영을 위해 배우, 소품 및 편집 담당, 촬영 담당 등 각자 역할도 나뉘었다. 미디어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디어와 친숙해지고 또 방송 관련 다양한 직업체험이 이뤄진다.

김상희 강사는 “매 시간, 센터에서 장비를 가져와 수업에 활용하다보니 이젠 학생들이 영상장비를 능숙하게 다루요. 중1 학생들이지만 학습능력도 뛰어나고 성취도와 결과물도 우수한 편”이라고 말한다. 갈매중에서는 센터의 장비와 다양한 기자재를 활용한 뉴스·광고·드라마·다큐·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제작 편집 실습교육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제작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드론 비행원리 및 영상촬영 체험, 뉴스 리포팅 및 내레이션 체험, VR촬영 체험 등 방송 관련 직업에 대해 두루 경험할 수 있어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의 권혜선 씨는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동아리활동, 문화예술 활동



01 학교폭력 근절 영상을 촬영 중인 학생들  
02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는 학생들  
03 갈매중 UCC영상제작반

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디어 거점학교를 운영, 방송국과 협약을 맺어 전문 방송인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 중심의 미디어교육을 제공하여 미디어 분야의 꿈나무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 31개교에 미디어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한다. 특히 특별강좌로 JTBC와 연계하여 아나운서, PD, 기자가 직접 강연자로 나서서 학생들의 방송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다.

그밖에도 각 센터별로 상설 미디어강좌를 개설하고 있어, 2시간, 4시간 과정의 상설프로그램을 통해 방송에 대한 이해와 아나운서, 기자, PD 등 방송 관련 직업별 체험도 할 수 있다. 진로체험인증기관의 우수 프로그램은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 www.ggoomgil.go.kr)을 통해서 확인,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부(www.teachforkorea.go.kr) 사이트에서도 다양한 진로체험 정보를 볼 수 있다. ㉠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는 지역사회에서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하고 체험의 질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이다.

### 국가진로교육센터, 생애주기별 맞춤형 진로교육

초등학생부터 은퇴자까지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이 이뤄진다. 지난 2017년 2월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내에 문을 연 국가진로교육센터는 생애주기별 진로교육을 담당할 국가 차원의 진로교육기관으로, 진로교육 정책연구·자료개발·진로상담·단위학교 컨설팅을 하며 국내외 진로교육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센터는 단계적으로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연구와 자료개발을 하고, 진로교육 현황 조사와 대학 진로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등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초·중·고·대학교 진로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은퇴자 등 ‘평생 학습자’ 진로설계도 지원한다.

진로정보망인 커리어넷 홈페이지를 보다 활성화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진로교육을 진행하는 학교에는 컨설팅과 연수를 지원해 진로교육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 지역진로교육센터와 긴밀한 수평·수직적인 연계를 돈독히 함으로써 단위학교에서 진로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진로교육 취약계층인 학교 내 진로 미결정자나 대학 졸업 유예자를 위한 맞춤형 진로교육을 진행하며 빠르게 변하는 미래 직업 세계와 유망분야 정보도 제공한다.

### 추진 체계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및 단년도 시행계획 등 수립</li> <li>• 진로교육 관련 정책 수립 및 점검</li> </ul>
국가진로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교육 관련 부처·기관, 지역진로교육센터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li> <li>• 진로교육 현황조사 및 평가 등</li> <li>• 진로교육 콘텐츠, 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li> </ul>
시·도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진로교육계획 수립</li> <li>• 단위학교 진로교육 예산 지원 및 평가, 운영 지도 등</li> </ul>
지역진로교육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보급</li> <li>• 학교 진로교육·진로체험 운영 및 교사 지원 등</li> </ul>

\* '16.12월 현재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진로교육센터 7개 운영 중

# 대학생이 제안하는 나의 초·중등 방학생활

## 유명학교 탐방하며 '교육개혁가'를 꿈꾸다

방학을 누군가는 재충전의 시간으로, 휴식시간으로, 보충학습의 시간으로 삼는데, 나에게 방학은 조금 특별한 시간이었다. 부모님께서는 “방학에 공부를 할 수도 있지만 학기 중에 하기 힘들었던 진로, 진학을 탐색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고 늘 조언해 주셨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매 방학마다



교생실습

부모님과 함께 여러 곳을 여행했다. 문화유적지, 관광지 등을 둘러 보기도 했지만 유명한 학교가 있는 곳을 데리고 다니셨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언제부터인가 나에게에는 ‘교육개혁가’라는 꿈이 생겼다. 항상 호기심 많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던 나의 성격과 ‘부모는 자식이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줘야 한다.’는 부모님의 신념이 있었기에 이런 체험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내가 견학했던 학교는 평범한 학교는 아니었다. 어떤 학교는 대학교 캠퍼스 같이 드넓은 부지에 최신식의 시설을 갖춘 곳이었고, 또 어떤 곳은 산골 마을에 위치하여 자연환경을 그대로 학생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학교였다. 자율형 학교, 대안학교 그리고 그 지역에서 유명하다고 매스컴에 알려지거나 소문이 난 학교들을 모두 다녀봤다.

김재윤 전주교대 학생

학교를 견학하면서 단순히 학교 시설이나 건물을 구경만 하고 온 것은 아니었다.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모습, 독창적인 교육과정과 수업 등을 둘러보았다. 광양의 한 고등학교의 경우 독창적인 내용의 수업들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생님들이 직접 개발한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수업했다. 그동안 틀에 박힌 교육만 받았었기에 그 당시 보고 온 모든 것들이 신선했다. 예비교사로서 교직을 평생의 업으로 생각하는 나로서는 그때의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다.

나는 지금 교생실습을 하고 있으며, 매일 초등학교들과 마주하고 있다.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꿈이 없어요.” “공

## “난 뭐가 되고 싶지? 뭘 하면 즐거울까?”

나는 꿈이 많은 학생이었다. 중·고등학교 6년을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청소년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난 앞으로 무슨 일을 할까? ‘무슨 일을 하면 즐거울까?’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많았다.

청소년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직업의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이것이 진로에 대한 폭을 좀 더 넓혀주었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조사를 하면서 다양한 직업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또 각 분야의 매력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기사를 작성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직업을 갖는다면?’이라는 상상을 수도 없이 해왔다.

취재현장에 나가서 직·간접적인 체험을 하면서 무엇을 할 때 흥미를 느끼는지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중학생 때부터 이런 과정을 수차례 거치다보니 공부하는데도 목표가 생겼다. 덕분에 고등학교 때 꿈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

## 고교 직장체험, 인생의 멘토를 만난 곳



청년직장체험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에서 직업훈련학교의 선생님을 보조하여 전산 분야의 업무 경험을 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되어 지금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었다. 당시 처음으로 접한 전산 업무였지만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막연하게 ‘흥미진진한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직업훈련 선생님들이 멘토를 자처해 주셔서 진로를 정하고 구체적인 진학 계획을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다. 덕분에 고

등학교 시절 직업훈련학교에서 가르치는 전산 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고, 지금은 직업훈련 교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진학했다.

고등학교 시절에 경험한 남들과 조금 다른 특별한 직업체험이 도움이 되어, UAE 아부다비 폴리텍 인턴십에도 선발되었고 해외에서 전산 과목을 가르치며 직업훈련 교사로서의 경험을 쌓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학창시절의 경험은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꿈을 키워나가는데 유익한 시간이었다.

진로고민에 빠져있는 학생들에게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추천한다. 청년(15~29세)들이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고 현장경험을 해 볼 수 있는 청년직장체험은 특히 올해부터는 인문계고 재학생으로 확대되었다. 진학을 위해 공부만 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고 싶은지 먼저 목표를 정하고 꿈에 한발 다가가기 바란다. 이번 여름방학에는 학생들이 꿈꿔 왔던 직업 현장을 체험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쌓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찾고 학업 동기부여의 시간으로 삼기를 강력하게 추천한다. 2



청소년기자단 활동 당시 사진

다. 꿈에 대한 확신과 목표가 생기면서 공부하는데 추진력도 생기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과한지를 정확히 짚어 낼 수 있었다. 말 그대로 ‘공부할 맛’이 났다.

청소년기자단 활동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져볼 수 있는 기회였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장단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 만약에 나 자신에 대해 돌아볼 시간이 없다면 다른 친구들처럼 우왕좌왕 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지 않았을까.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이나 체험에 도전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했으면 한다. 분명 자신만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청소년활동을 할 여건이 안 된다면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라도 꼭 가졌으면 한다. 자신에게 옳은 것이 집중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다보면 내적인 성장도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번 여름 방학은 나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김명아 순천향대학교 학생

김병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학생

# 학생의 진로탐색 지원을 위한 진로체험 활성화 정책

글 송은주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

초·중·고 학교교육에서 진로교육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 학교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데 머무르지 않고, 교육활동과 연계한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배움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진로설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 「진로교육법」을 제정(15.6.22, 시행 '15.12.23)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지난해 발표된 '2016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그동안의 학교 진로교육 관련 정책들이 학생들에게 유의미한 변화들을 이끌어 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가 최근 3년간(14~16)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진로 활동 참여가 학생들의 '자존감'과 '학습태도'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그림1 참조>.

## 범사회적 진로체험 제공 분위기 정착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교과서와 영상으로만 접하던 직업세계에 대하여 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실제 종사자로부터 직업에 대해 자세히 소개받고, 직업 실무를 체험해 보는 생생한 진로체험활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직

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고, 본인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좀 더 적극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학교교육에서의 진로체험활동 도입은 학교교육의 변혁이며, 살아있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다. 기존 학교교육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었다면 진로체험 활동이 더해진 학교교육은 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으로, 살아있는 교육이자 실제적인 교육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 진로체험은 더욱 발전되고, 지속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진로체험이 활성화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험처 발굴과 체험활동 지원 시스템 구축 등 지원 체계 마련에 노력해왔다.

먼저 범사회적인 진로체험 지원 분위기 조성과 양질의 체험처를 확보하기 위해 「진로교육법」과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제공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의무화하였으며, 매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지표에 진로체험 제공 실적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민간 체험처의 참여 유도를 위해 지난해부터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시행하였으며, 대학,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특히,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그림1.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전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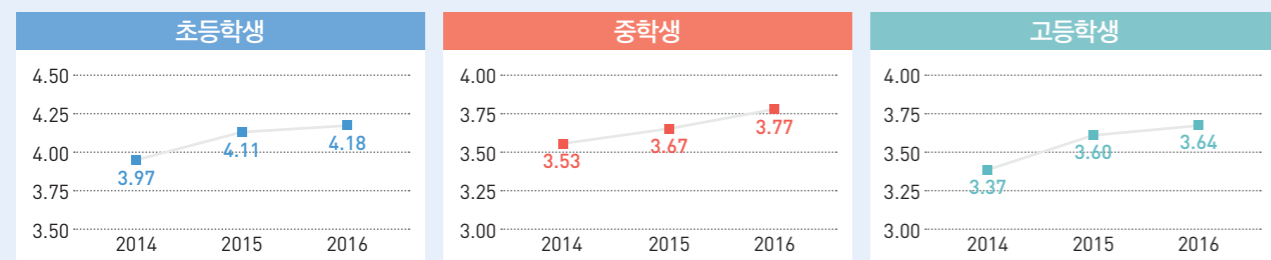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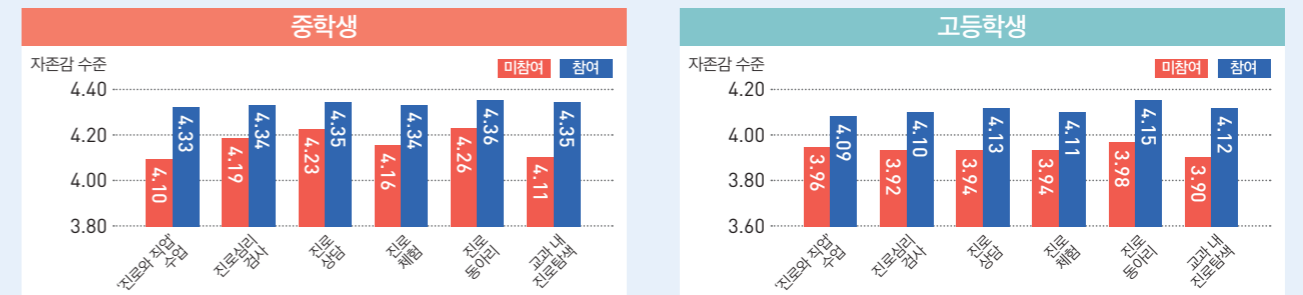


그림2. 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참여 여부에 따른 자존감 수준 차이



주) 응답 범위 : 1~5점(1.2점 낮은 수준, 3점 보통, 4.5점 높은 수준)

주) 응답 범위 : 1~5점(1.2점 낮은 수준, 3점 보통, 4.5점 높은 수준)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러한 노력들로 공공 및 민간기관, 대학 등이 적극적으로 학교 진로체험 지원을 위해 함께하고 있으며, 범사회적인 진로체험제공 분위기가 정착되는 추세에 있다.

이와 함께 전국에 구축된 219개 진로체험지원센터(17.6월 말 기준)가 체험처 발굴 및 체험활동 매칭지원 등 학교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15년에 구축되어 운영 중인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sup>2)</sup>은 학교가 '꿈길'에 등록된 체험처의 체험프로그램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의 보장적, 조건적 평등<sup>3)</sup> 관점에서 농산어촌 지역 학교와 사회적 취약 계층 학생들이 진로체험 활동에 있어 소외받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및 '대학-도서벽지 연계 진로캠프'가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수준을 높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신직업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 예로 지역의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 마련한 '진로체험센터'에서는 창업 관련 진로체험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신기술 관련 스마트 가상 진로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진로체험의 양적 확대에 따라 체험활동이 안전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및 사후 안전 관리와 질 관리 등을 위한 지원 체제도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진로체험활동 상황실 운영과 체험처에 대한 정기·상시적 안전점검, 불만족 체험처에 대한 사후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내 양질의 체험처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하여 무료로 운영되는 양질의 체험처를 학교에 안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능동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도약 준비

'16년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 회장이 언급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발언은 우리 사회 전체에 새로운 이슈를 던져주었고, 교육계에서 역시 학교교육을 반성적으로 고찰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진로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학생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로설계 역량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운영·지원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래 유망 직종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지원 확대와 미래 사회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관련 진로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다문화 및 학교 밖 청소년, 특수교육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정책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진로교육은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서 모든 학생들의 행복하고, 능동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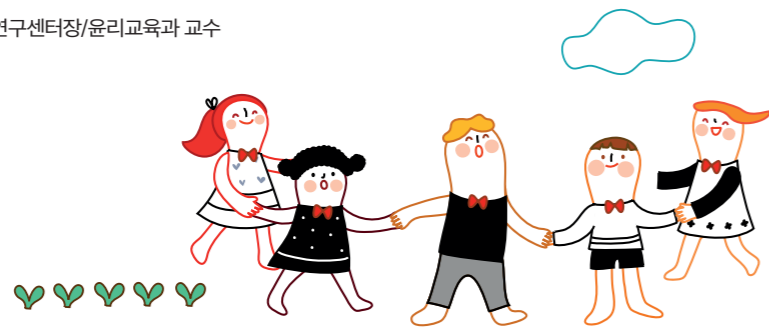
1) 학생들에게 무료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교육부 장관 명의의 인증 부여(17.6월 기준 1,316개 인증)

2) 체험처의 프로그램 등록·관리 및 학교 체험활동 매칭지원을 위한 진로체험지원전산망(<http://www.ggoomgil.go.kr>)

3) (보장적 평등) 경제적,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교육받을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관점, (조건적 평등) 학교시설, 교육과정, 교사의 질 등 교육의 과정에서의 모든 조건이 공평하도록 하는 관점

# 모든 학생과 손잡고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

글 박성춘 서울대학교 통일교육연구센터장/윤리교육과 교수



필자는 “다문화학생” 그리고 “탈북학생”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다소 놀랄만하다. “다문화학생”은 다문화라는 용어와 다문화교육을 아주 싫어하며, “탈북학생”은 북한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외모적 측면과 언어 사용에 있어서 다른 학생들과 특별히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문화학생” 또는 “탈북학생”임을 감추려고 한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처럼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학생으로 받아들여지길 원한다. 그들 부모의 문화적 배경 또는 고향때문에 다른 일반 학생들과 구분되는 특별한 학생으로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그 부모들은 자녀들이 다문화학생 또는 탈북학생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학교 선생님들에게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다문화·탈북학생’이란 말에 내포된 차별과 편견

이들이 특별한 집단으로 구분되고 싶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편견과 고정관념이 그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너 다문화지?”라는 말은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폭력적이며 비하하는 이야기임을 “다문화학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대부분의 “탈북학생”은 “너 북한에서 왔지?”라는 말을 공격적이며 비난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을 이해한다면, “다문화학생”인 동시에 “탈북학생”을 “다문화·탈북학생”으로 지칭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편견과 차별을 이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들을 따로 구분 짓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부정적 고정관념을 심어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교육 효과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남북의 분단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탈북학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이유는 탈북학생 통계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2017년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2,517명(16.4월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북한출생 탈북학생은 1,200명(47.7%)이며,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은 1,317명(52.3%)이다. 즉, 북한 출생 탈북학생의 숫자보다 부모 중 한 사람이 탈북자이며 그 자녀가 중국 등 제

## 분단·다문화시대의 교육은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3국에서 출생한 탈북학생의 숫자가 더 많다. 이처럼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학생의 비율이 50%를 넘는 현상은 2015년부터 생겼다. 한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일반 초·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없는 학생들의 대부분은 탈북학생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교들에서는 한국어교육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서 발표한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99,186명(16.4월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학생” 통계를 살펴보면 2013년에 55,780명에서 2016년에 99,186명으로 3년 사이에 약 2배로 증가하였다. 이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 모든 학생이 서로를 이해하는 교육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등은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이다. 이 나라들에서는 다문화사회, 다문화시대, 다문화교육이라는 표현은 흔히 쓰이지만, 다문화가족이라는 표현 자체가 존재하지 않다. “다문화 + 사회”에서 다문화는 “다양성이 존재하는”이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다문화 + 학생”에서 다문화는 “우리의 문화와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안타깝게도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는 다른 어느 국가에서도 사용되지 않으며 대한민국에서만 사용되는 용어이다. 다문화의 뜻이 잘못 이해됨으로 인하여 다문화교육은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진 그들을 우리 사회에 적응할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으로 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탈북학생”이라는 표현은 새로운 소수자 학생들을 더욱 소외시키게 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2015년까지는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계획”으로 발표되었던 내용이 2016년부터는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으로 발표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계획과 함께 다른 학생들과 교원들을 위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즉,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분단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격차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문화시대에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다양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 분단·다문화시대의 교육은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우리 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모든 학생들이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과 같다.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학생 “다문화·탈북학생”과 함께 손잡고 더불어 성장하는 교육이 중요할 것이다. ②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까, 어떤 직업이 유망할까. 다양한 진로고민을 안고 힘든 적은 없었나요? 전문가를 만나 속 시원히 상담을 받고 싶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다행히 학교마다 진로상담 교사가 배치되고 있고 온라인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가 있어 활동이 자유롭지 않거나 지역 여건상 접근성이 떨어져 전문적인 진로지도 받기 어려운 학생들도 여전합니다. 교육부는 올해 처음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을 실시해 특수학생, 다문화 또는 탈북 가정의 학생 등 지역 여건상 진로상담이 어려웠던 학교의 학생들을 지원합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 정책을 쫓쫓 짚어드립니다. <편집실>

## Q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사업이란 무엇인가요?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은 지역적·환경적 특성으로 진로설계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학교로부터 '참가신청서' 및 '프로그램 설계서' 등을 미리 접수받아 개별 학교 및 학생의 요구를 분석하여 맞춤형 진로상담을 제공합니다. 개별 학교에서 자체 특성에 맞게 1일 4시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설계하여 학교의 여건과 특수성을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학교별로 다수의 전문가(상담가, 현직 직업인 포함 5명 내외 구성)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지원 서비스입니다. 특수학생·다문화 또는 탈북 가정의 학생을 위해서는 별도로 양성된 사회적 배려대상자 진로상담 전문가를 일부 활용합니다.

셋째, 찾아가는 진로상담 참여 전문가와 해당 학교의 진로전담(담당)교사가 함께 상담내용이나 상담방법을 구체화하도록 하여 개별 학교에 전문가의 진로상담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 Q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 운영 절차가 궁금합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은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은 지역적·환경적 특성으로 진로설계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Q 올해 첫 시행되는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요?

올해 처음 시작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진로상담'은 특수학생, 다문화 또는 탈북 가정의 학생 등 지역 여건상 진로상담이 어려웠던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Q 상담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 학교의 요구에 맞춰 전문가가 팀을 이뤄 직접 학교로 찾아가줍니다. 개인 또는 집단 상담, 멘토와의 만남 등 학교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진로상담을 진행합니다. 예컨대 개인 또는 집단 상담의 경우, 진로·진학 상담가, 심리 상담가, 현직 직업인, 학습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됩니다. 멘토와의 만남은, 특정 직업 분야의 현직 직업인이 학생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 Q 올해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대상학교는 중학교 20개교, 고등학교 8개교, 특수학교 6개교로 교육청의 추천이나 학교의 신청을 통해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 2개교씩 34개교를 선정했습니다.

찾아가는 진로상담은 6월 13일(화) 수도권 소재 중학교를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학교별 희망 일정에 맞추어 진행합니다.

표. 시도교육청별 참가 학교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중학교	1	2	2	1	1	1	1	1	1		2	1		2	1	2	1	20
고등학교				1		1	1	1	1	1					1		1	8
특수학교	1				1					1		1	2					6
소계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34

### Q 참가자들과 학교의 반응은 어떤가요?

진로상담에 참가하는 전문가와 학교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이번 사업을 환영하면서 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전문가로 위촉된 한국직업상담협회 진홍섭 이사는 "개인적, 환경적 제약으로 진로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학생 등을 만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진로설계를 돕는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제주 우도중 최재광 교사는 "섬 지역의 특성상 진로 체험의 기회가 부족한데, 평소 알고 싶었던 직업의 종사자가 직접 학교로 찾아와 이야기를 들려준다니 우리 학생들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②



# 4차 산업혁명과 인문소양교육

글. 한원경 대구광역시교육연구수원장

많은 미래학자들은 올해가 4차 산업혁명의 원년이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영화나 공상과학소설에 먼저 등장하였다. 영화에 감성로봇,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비서 등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인간과 감정 소통이 가능한 인공지능 로봇 팻퍼 1,000대가 판매되었다. 판매시작 1분만에 다 팔렸다고 한다. 인간의 표정을 읽고, 감정을 파악하여, 대화가 가능한 감성로봇이다. 우리 돈으로 180만 원 정도라고 한다. 구글의 자율주행차, 아마존의 인공지능 비서인 알렉스는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가 아닌 우리의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교육에 시사점을 얻기 위해 생전 자신의 미래 전망이 가장 잘 들어맞은 한국을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는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의 '가상 시나리오'를 인용해 보겠다.

아프리카 대륙의 어느 강 유역에 원시 민족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백인들이 나타나 그 인근 상류에 거대한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10년쯤 후 댐이 완공되면 강물이 말라 그들의 생활환경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인데도 이를 모르는 원시 민족은 그들의 후손에게 생활하는 방법으로 물고기를 잡는 법, 카누를 만드는 법, 사냥을 하는 법, 농사를 짓는 법 등을 여전히 가르치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댐이 완성되자 그 원시 종족과 그들의 문화는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그래야 교육이 학생들을 꿈꾸게 할 수 있고, 희망을 노래하게 할 수 있다. 가상 시나리오에 나오는 원시 종족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물고기 잡는 법, 카누 만드는 법과 같은 미래의 변화를 모르고, 과거의 내용과 방식을

답습하는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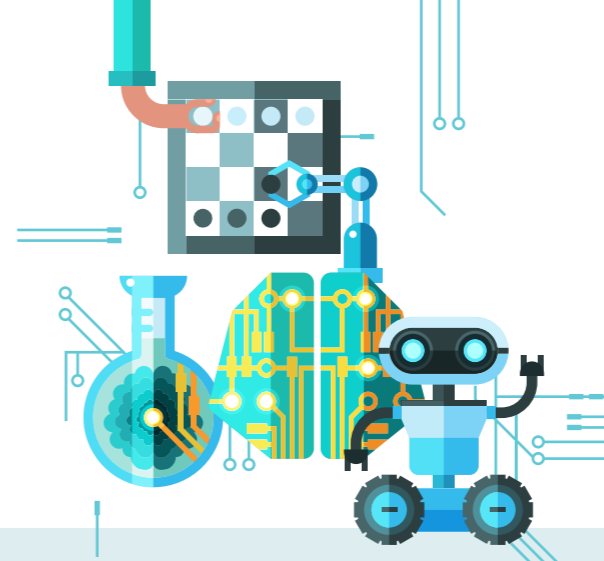
## 시대적 질문과 답을 인문소양에서 찾다

4차 산업혁명 대비 교육을 가장 잘 하고 있는 나라는 에스토니아라고 한다. 지중해 근처에 있는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는 20년 전인 1993년부터 유치원생을 비롯한 전 국민들 대상으로 ICT,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였다. 그 결과 1993년도에 1,150 달러였던 1인당 GDP(Gross Domestic Product)가 2013년에 19,129 달러가 되었다. 20년 만에 17배 정도 성장하였다.

최근에는 에스토니아가 빅데이터 과학, 수학교육을 강화하는 2차 교육혁명을 시작했다고 한다. 이런 교육 결과,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평가에서 에스토니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핀란드를 넘어 서고 있다고 한다.

남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공식을 이용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풀어, 정답을 찾는 경쟁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다.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해결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남이 만들어 놓은 기술을 모방하여 양적 성장과 수평적인 팽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질적인 성장과 수직적 팽창을 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이를 위한 유용한 수단이다.

사람은 물론 기계와 소통하는 교육과 더불어 우리는 우리의 좌표를 읽을 줄 아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큰 시대적 변혁기에는 지금 우리가 어느 좌표에 서 있는지, 어디를 쳐다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오늘의 인문학도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접근해야 한다. 이 시대에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시



이 시대에 우리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런 시대적 질문과 답을 인문소양이 제시해 주어야 한다

대적 질문과 답을 인문소양이 제시해 주어야 한다.

## 인문소양을 위한 '인문고전 읽기'와 '디베이트'

현재 인류는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 자연과의 화해 문제,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문제, 경제 양극화 문제, 소통의 문제, 금융자본의 문제, 기아 문제, 정치 체제 문제 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클래식한 인문 고전을 한 권 읽고 난 후 깊은 토론이 필요하다. 고전의 특성상 저자의 권위에 눌려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다. 그래서 반드시 저자의 주장과 반대되는 논제의 디베이트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저출산이 불러올 전 지구적 재앙"이라는 문제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필립 롱맨이 쓴 『텅 빈 요람(The Empty Cradle)』을 먼저 읽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과 반대되는 "노후 생활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라는 반대 논제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토론을 한 후 불경과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공자는 논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플라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무어라고 답을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상가들은 어떤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지까지 파악해 본다. 이렇게 읽다가 보면 아무리 성현이라고 하더라도, 유명한 사상가라도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 했구나?'를 확인하게 되고, 그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 문제가 바로 큰 질문이 될 수 있다.

이 큰 질문을 갖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지능정보기술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답을 찾아서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시대의 좌표를

읽는, 큰 숲을 보는 인문학적 질문 없이, 개별 지능정보기술로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확히 정하기 어렵다. 기술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방향과 좌표가 없는 지능정보기술은 문명의 이기가 되기보다는 끔찍한 도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구교육청은 2005년에 '아침독서 10분 운동'을 시작하여, 2007년에는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2009년에는 읽고 쓰기를 통합하기 위한 '학생저자 10만 양성을 위한 책쓰기 운동'을 전개해 왔다. 책쓰기 운동으로 7만 명의 학생저자가 탄생했다. 시중에 출판된 도서가 178권에 이르고 있다. 2012년부터는 '디베이트 중심도시 대구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2014년부터 질적 변화를 통해 교육 공동체의 행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100-100-1 프로젝트' (인문도서 100권 읽기, 100번 토론하기, 1권의 책쓰기)로 바꾸어 인문소양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책쓰기 교육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동일한 정책을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면서 고집스러울 정도로 13년째 추진해 오고 있다. 2014년 11월부터 전국 초·중등학교의 인문교육을 위해 교육부의 인문소양교육지원센터가 대구에 설립되었다. 이 센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생들의 인문소양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㉔



한원경 원장은 경북대학교에서 국어교육을 전공하고 동 대학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18년간 교사로 근무했다. 이후 장학사, 장학관을 거쳐 현재 대구광역시교육연구수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교육부장관 지정 '독서, 글쓰기 정책 신지식인'으로 꼽힌 바 있는 그는 대구교육청 장학사로 7년간 아침독서 10분 운동, 삶을 가꾸는 글쓰기 운동, 학생저자 10만 양성을 위한 책쓰기 운동, 디베이트 중심도시 대구 만들기 프로젝트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학교교육

글 김경하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얼마 전 방영된 프로그램에서 노숙자 A씨는 한 기관에서 실시한 인문학 교육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경험을 한다. 난생 처음 인문학 책을 읽고, 책 속의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해 하는 것을 보며,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재활의 힘을 얻었다는 것이다.

‘노숙자와 인문학’.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인문학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사례이다. 2016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것이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인문소양교육을 개정의 중점 방향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학교교육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 독서와 연계한 인문학적 소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표방하고 있는 ‘인문학적 소양’은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 및 판단능력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의 발전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교육부, p43).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에서 추진되어야 할 ‘인문학적 소양’ 교육은 ‘독서’와 연계한 교육이어야 한다. 함께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나누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스펙트럼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각의 힘을 키우고, 삶에 대한 성찰들을 이룰 수 있다.

이것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한 학기 한 권’ 읽기와도 맥을 같이한다. 교과서에 실린 짧은 글, 토막글 대신 책 한 권을

온전히 읽고 생각을 나누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수업을 통해 정정·소통·사고·성찰하는 배움이 일어나며, 삶으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학습경험을 강조한다. 이것이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든 책을 읽을 수 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인문 독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복도문고, 학급문고 등을 통해 책과 친근한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카페를 조성한다. 이는 청소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과 나눔과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이를 통하여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독서의 생활화가 필요하다. 학업에 쫓겨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서울시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방에 책 한 권’ 독서생활화 캠페인은 늘 책을 가지고 다니며 책을 읽는 모습이 일상화되는 것으로, 독서를 통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나누며 ‘책 읽는 시민·토론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 교육과정과 연계된 체험중심의 인문학적 소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별 교육과정에 다양한 인문소양교육 내용 요소를 반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즉, 그간의 이론 위주의 문학교육을 감성과 소통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고, 문학, 역사, 철학, 사회, 과학 교과에서 인문소양 함양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 내용을 재구조화 한다. 교과별 인문학적 가치와 요소를 통합한 융합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교과 연계 인문학적 주제·질문을 중심으로 한 토의·토론수업을 활성화한다. 특히, 비경쟁적, 협력적 토론인 질문이

# 학교에서 추진되어야 할 ‘인문학적 소양’ 교육은 ‘독서’와 연계한 교육이어야 한다. 함께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타인과 나누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인문학적 스펙트럼을 넓혀나가야 한다



있는 서울형토론모형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체험적 인문학적 소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인문독서·책쓰기 동아리, 학생 독서토론 동아리, 독서캡드 등 학교단위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다.

## 학교급을 고려한 인문학적 소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서습관 형성이다. 학교와 가정에서 저학년부터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



의 풍부한 상상력을 키우고, 책과 연계한 체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책 읽는 습관을 들여 평생 독자로 만들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공공기관, 지자체·대학 등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진로인문프로그램 등을 경험하게 하며, 중·고등학교에서는 독서·인문동아리활동으로 자신을 바라보며 가치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가족(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전반에 대한 인문소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재상이 요구되는 지금 교육의 방향도, 방법도 바뀌고 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키우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어느 한 개체만의 교육을 통해서 어렵다.

학생들에게는 독서를 통한 인문체험활동 중심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다면, 교원과 학부모에 대하여서는 삶에 대해 성찰하고 사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다양한 인문학 강좌뿐만 아니라, 인문 독서·토론 동아리활동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소통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지역사회와 연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별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 지역축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인사 초청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역사를 알고, 타인의 삶을 이해하는 것은 살아있는 교육으로서의 좋은 인문 체험이 될 것이다. 또한, 주변 대학들을 활용하여 다양한 인문학적 체험과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개인만을 생각하는 좁은 시야와 삶을 떠나 인간을 이해하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시야를 갖고 소유하는 능력은 인문학적 소양교육의 결과이다. 세계 유명 CEO들의 배경에는 인문학이 있다는 사실과 구글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6,000명 중 5,000명을 인문학 전공자로 뽑겠다고 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중심의 인문소양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삶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가 되기를 기대한다. ②



김경하 장학사는 서울교육대학교를 나와 동 대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강동송파교육지원청 장학사를 역임하고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재직 중이다. 그는 독서, 인문소양교육 관련 직무연수 및 특강, 독서인문소양교육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학교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는 학교 교육활동에도 시너지를 낳는다. 때문에 학교교육의 동반자로서 학부모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학부모지원센터를 두고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부모의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어린이 놀이문화 정착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놀이교육을 펼치기도 한다.



## “엄마는 토론 중!” 협력적 토론교육에 앞장

강원도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공동체로서 학부모회의 역할 정립 및 바람직한 학교교육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7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부모지원센터를 두고 학부모 놀이, 토론, 독서 지도 역량 연수를 진행, 학부모들은 교육지원단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 중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독서·토론·논술교육 강화와 관련하여 민간보조사업인 강원토론학교, 강원토론동아리 사업은 학교, 교사, 학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소년토론동아리 「후마니타스 북클럽」은 2016년 「엄마는 토론중이라 전해라~」, 「학부모교실토론」, 「이야기가 꽃피는 교실토론」, 「학부모 토론카페」, 「학부모 토론교육: 톡(Talk) 톡한 관계 만들기」, 「학부모 협력적 토론」 등 교육지원청별 학부모 토론연수 후 학부모토론교육공동체가 자율적으로 결성, 2017년 민간보조사업으로 선정

되면서 관내 초·중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협력적 독서토론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강원토론코칭과정은 학부모와 사서교사를 비경쟁토론 지도사로 양성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타인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생각에 남의 생각을 더하고 더 나은 문제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현재 10회 차로 운영 중이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일보사를 민간보조사업자로 선정하면서 2011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학부모토론코칭과정을 이수한 학부모들이 ‘찾아가는 강원토론학교’를 활발하게 진행하며 엄마 선생님의 위상을 펼치고 있다.



## “엄마는 체득하고 아빠는 배우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역량개발센터에서는 올해부터 새로운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매달 주제를 선정하여 총 8회의 심화과정 강좌를 운영하였으나, 2017년에는 이 외에도 ‘체득형 실천 심화과정’과 ‘아버지 참여 심화과정’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심화 강좌를 신설하였다.



‘체득형 실천 심화과정’은 조금 더 실제적인 자녀교육법을 배우길 원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에 따라 개설되었으며, 기존강좌의 강의 형식을 벗어나 자녀교육법을 직접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강좌이다. 이 강좌는 30여 명의 학부모들이 함께 의견을 나누고 개별 활동과 조 활동을 통해 자녀교육법을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4월과 6월에 유·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역할극’과 ‘집단코칭’을 도입한 강좌를 운영하였다.

‘아버지 참여 심화과정’은 자녀 교육의 책임을 떠안고 있는 어머니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버지들의 육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개설한 강좌이다. 평일 저녁과 주말 오전을 이용하여 아버지들의 참여를 확대하였고, 4월과 5월에 운영한 강좌에서는 매 강좌마다 30여 명의 아버지가 참석하였다. 이 강좌에는 어머니들의 관심도도 높아 부부가 함께 참석하거나 자녀를 동반하여 강좌를 듣는 등의 다양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 “우리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 확산



충청북도교육청은 지역 학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한 '2017년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를 10개의 교육지원청 및 충북중앙도서관에서 16개 강좌를 개설하여 4월부터 본격 운영

하였다. 이번 아카데미는 학부모 교육 참여로 ‘내 아이’가 아닌 ‘우리아이’를 함께 키우는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학부모 동아리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영동 행복·나눔아카데미 강좌는 ‘우리 아이 마음을 여는 대화법’, 충북중앙도서관은 ‘하루부터 우리아이 키우기’, 청주는 ‘도란도란 학부모 책모임’, 충주, 진천은 ‘전통놀이 지원단 양성’ 등을 진행하여 참여한 학부모들로부터 큰 만족과 호응을 얻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부모 아카데미와 연계한 학부모 동아리활동이 학부모들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및 우리아이 함께 키우기 문화 확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학교교육,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요”



대전평생학습관에서는 교육주체로서 학부모가 원활하게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4월에 초·

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교육 모니터링, 학부모 자원봉사(교육기부), 학부모 교육 등의 내용이 담긴 활동계획서를 공모를 하여 25개교 학부모회를 선정, 교당 200만 원 지원금을 배부하였다. 또한 원활한 학부모회 활동을 위해 선정된 학부모회 임원,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사업운영 집합 컨설팅을 2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이날 학부모들의 학교 참여 범위, 실질적인 학부모회 활동 및 효과, 예산 집행 안내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며, 학부모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지역 학부모공동체와 함께 하는 학부모교육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참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올해 첫 시행한 학부모공동체 지원 사업이 지역사회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산 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지난 2, 3월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사상성 장맘스' 등 21개 학부모공동체를 선정, 총사업비 5천 6백만 원을 지원해 학부모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학부모공동체 '구포 여지도'의 구포 마을지도 만들기를 위한 연수 및 탐방, '열린공간 동네사람들의 교육희망 찾기-학부모 역할 길라잡이', '명지좋은엄마모임'의 사진으로 담아내는 마을스토리텔링, '더늬패'의 풍물·민요·놀이 연수 등이다. 또, 학부모공동체와 함께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실도 기획·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자원 부족으로 지역사회에서 실시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학부모교육과 지역 학부모공동체와의 협력 체제 구축 등으로 학부모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 종초초, 학부모 취미 동아리 운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종초초등학교(교장 강미애) 학부모회에서는 올해 '꿈, 감동, 추억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꿈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각종 학교 행사 참여와 손뜨개, 요가, 독서논술 등 자녀와 함께 참여하는 취미 동아리를 운영한다. 모두 학부모 강사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밖에 늦은 저녁 시간 부모님과 함께 하는 달빛 도서관, 꿈을 찾아 떠나는 진로캠프 운영, 자녀와 함께하는 신문 활용 학습을 운영한다. '감동 만들기' 활동으로는 매월 1회 '시네마데아'를 운영하

여 저녁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영화 관람을 한다. 아빠와 함께하는 뒤죽박죽 요리 체험 활동인 '조물조물 아빠와 요리 COOK!'. 지역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식사 돕기와 청소 봉사활동을 한다. 다양한 활동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부모들의 학교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학부모교육 지원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육 가족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행복한 자녀교육, 더 나아가 지역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 맞춤형 학부모 강좌 '자녀사랑 목요일아카데미'



경상남도교육청은 오는 12월까지 '학부모 자녀사랑 목요일아카데미'를 실시한다. 목요일아카데미는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맞춤형 학부모 강좌

로 학부모의 만족도향상과 자녀교육 역량강화 및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회 확대 차원에서 준비되었다. 최성애(HD행복연구소장) 강사의 '우리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코칭'(4월), 천중호(부산가정법원 부장판사) 강사의 '청소년 비행의 이해와 예방'(5월), 김형운(MBC PD) 강사의 '행복한 배움, 어떻게 가능할까?(6월)'를 주제로 강의를 마쳤으며, 오는 7월 13일에는 편해문(놀이터 디자이너) 강사가 '놀이터는 아이들이 만든 학교이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 자녀와 놀이에 빠지다 "실컷, 맘껏, 함께 놀기"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올해 실천적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 놀이교육 운영과 연계하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놀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지역별로 총 5회 실시된 기본교육은 '잘 노는 아이가 행복한 어른이 된다'는 주제로 진행되어 초·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놀이에 대한 인식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학부모를 통한 학교 현장의 놀이교육 확산의 마중물이 될 '신나는 학부모 놀이지원단' 양성과정으로 6월 한 달간 총 7회 진행된다. 학부모 60명이 참가한 이번 심화과정은 '실컷, 맘껏, 함께 놀기'라는 슬로건 아래 서울시립과학관 이정모 관장의 '놀이, 발달의 무궁한 자원'이라는 주제 강연을 시작으로 놀이교육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가 강연한다. '함께 하는 놀이' 시간도 마련, 체험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심화교육 수료자를 중심으로 하반기 학교 학부모회 및 학부모 동아리 놀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놀이지원단'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학부모 활동가와 교육을 열다!



충청남도교육청은 △맞춤형 학부모교육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초·중학교 예비학부모교육 △좋은 사이버 학부모교실 등의 학부모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교육청에서는 2017년 학부모 활동가 교육을 새롭게 추진하였다. 전래놀이, 동화연극 학부모 활동가 교육을 이수한 학부모가 학교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마을교사로 지속적인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하고자 개설하였다. 본 교육은 놀이문화 확산 및 학생의 감성교육 신장을 목적으로 행복교육지구와 연계하여 당진권역에 전래놀이, 공주와 논산 계룡권역에 동화연극 과정을 개설하였다. 동화연극과 전래놀이 학부모 활동가 45명은 기본과정을 이수하고 초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초등돌봄교실, 아침활동시간, 방과후시간 등에 10시간 인턴십을 하고 있다. 또한, 기부 내용을 밴드로 공유하여 학교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전통놀이 배워 어린이 놀이문화 전파



전남 해남교육지원청은 6월12일부터 7월 10일까지 매주 월요일 10회에 걸쳐 해남꿈누리센터에서 '자녀 진로교육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해남, 영암, 진도 학부모 60명이 참여하며 소통공감행복연구소 공혜경 소장의 강의 및 실습으로 진행되며, 전통놀이와 역사이야기, 전래놀이, 민속놀이(24절기 세시풍속) 등을 포함해 놀이 학습과 전통예절까지 배우는 유익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시대적으로 젊은 세대가 학부모 및 한국의 전통놀이를 경험해 보지 못한 다문화 학부모의 경우 이번 연수를 통해 한국 전통놀이에 대한 이해와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학부모들 모두에게 전통놀이 지도사 1급 자격증이 주어지며 소외 계층이나 방과후학교 등에서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놀이문화를 전수할 예정이다. ㉔

# 독일 중등학교의 '중점 교육과정'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에서 '중점 교육과정'은 특정 영역이나 교과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 또는 교육과정 거점학교의 교육과정을 일컫는다. 과학 중점, 영어 중점, 수학 중점 등 '교과 중점' 교육과정은 최근 들어 맞춤형, 인성, 창의적 체험활동 등의 '중점 교육과정'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추세이다. 거점학교는 지리적으로 인근의 학교들 중 '거점' 즉, 중심이 되는 학교들(core schools)을 넘어서서 무언가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 즉 보다 전략적인 정책을 수행하는 학교의 교육과정이다. 거점학교는 특정 교과 또는 프로그램에 '중점'을 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인근 학교에 문호를 개방하여 학교들의 공동체 중 거점이 된다는 점 즉, 공동 교육과정 운영학교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 김나지움

## 단위학교 중심의 '교과' 중점 교육과정

이러한 용례를 볼 때 독일의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점 교육과정'이라고 한다면 이는 거점학교보다는 학교에서 중점적으로 어떤 교과 또는 영역에 집중하는 첫 번째 의미에 가깝다. 독일 중등학교는 전기 중등학교, 후기 중등학교로 구성되며 각각 몇 가지 유형의 학교로 구성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대표적인 인문계 학교인 김나지움(Gymnasium)은 중·고등학교에 모두 해당되기도 하며 특히 중학교만을 일컫기도 한다. 중학교 김나지움은 김나지움 외에 전문계 중학교인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와 레알슐레(Realschule)가 있다. 고등학교 단계로 가면 중등학교 상급반인 김나지움 오베르스투프(Gymnasiale Oberstufe) 및 기타 실업계 학교 유형들이 있다.

독일의 '중점 교육과정'은 중학교 김나지움과 고등학교 김나지움에서 각각 특정 교과에 대해 많은 시간을 집중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이다. 김나지움은 심화된 일반교육(an intensified general education)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소개된다. 상대적으로 하우프트슐레는

기초 일반교육(Basic general education)을, 레알슐레는 좀 더 광범위한 일반교육(more extensive general education)을 제공한다. 중학교 단계 김나지움(4년 또는 6년제)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외국어를 중점 교육한다. 최대 3개의 외국어를 7학년년부터 4년간 배운다. 과정을 제시하는 학교는 교과별로 2개 이상의 수준으로 구분하여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 교과의 심화를 위해 8~10학년에는 심화시간이 주당 1시간 정도씩 배정된다.

표. 독일 베를린 중학교 김나지움(6년제)의 시간표

제목/과목	학년					
	5	6	7	8	9	10
독일어	200	200	160	160	160	160
수학	200	200	160	160	160	160
제1외국어(영어)	120	120	120	120	120	120
제2외국어(라틴어)	200	200	160	160	120	120
자연과학						
생물학					80	80
물리학	160	160	160	160	80	80
화학					80	80
사회생활						
역사/사회			80	80	80	80
지리	120	120	40	40	40	40
윤리학	-	-	80	80	80	80
음악	80	80	80	60	80	80
미술	80	80	80	60		
체육	120	120	120	120(80)	120(80)	120(80)
필수 선택 제3외국어	-	-	120 (-/-)	120 (160/-)	80 (120/200)	80 (120/200)
심화*	-	-	-	40(80)	40(80)	40(80)
총 수업시간 수	1280	1280	1360 (1240/1240)	1360 (1400/1240)	1320 (1360/1240)	1320 (1360/1440)

※ 출처: www.berlin.de/sen/bwf

## 바이에른 주, 음악 중점 김나지움 56개교 운영

2년제 또는 3년제의 고등학교 김나지움은 교과 중점이 더 강화되어 라틴어 중점 김나지움, 음악 중점 김나지움으로 불린다. 일반고에 해당하는 김나지움이 이렇게 특정 교과를 중점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대학입학 시험인 아비투어가 이를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바이에른 주에만 음악 중점 김나지움이 56개 운영되고 있다.

고등학교 김나지움에서는 대학입학자격(Allgemeine Hochschulreife)이 주어지는 아비투어 시험(Abitur Examination)에 따라 교과를 가르치기 때문에 고교 교육과정의 편성은 아비투어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sup>1)</sup> 기초 수준부터 교과 기준의 심화된 수준으로 구분되어 기초 수준에서는 기본 과학, 심화 과학 식이다. 학생들은 교과 심화 수준의 과목을 2~4개 선택하고 3~4개 과목을 최소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2과목만 할 경우는 최소 5시간씩을 해야 한다. 또한, 독일어, 수학, 외국어, 자연과학 중 하나는 심화과목을 해야 한다.

고등학교 김나지움의 첫 학년에서 학생들은 2개 외국어를 공부해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비투어의 4~5개 교과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선택해야 하고, 이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이수해야 한다.

- 심화 수준의 과목 2개
- 독일어, 외국어, 수학의 3개 교과 중 1개 과목
- 필수 교과에서 최소한 1개 과목

요컨대, 독일의 일반계 중등학교인 김나지움은 중학교에서는 외국어 중점 교육 및 교과별 심화 수준을 통한 중점 교육을,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별 기초 및 심화수준으로 구분하여 대학진학을 위해 최소한의 교과 외에 학교별로 외국어, 음악 등에 대한 중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②

1) 주별로 치르던 독일의 아비투어는 2017년부터 국가 차원의 중앙 아비투어(Zentrale Abiturprüfungen)로 시행되었으며, 독일어, 수학, 영어, 프랑스어가 해당된다.

# 7월, 학기말을 잘 보내는 노하우

방학을 앞둔 7월, 그동안 진도에 쫓겨 챙기지 못했던 아이들의 마음을 돌봐줄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 '성찰'의 시간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 모두 서로의 만남을 통하여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진지하게 아이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아德勒(Adler)는 문제행동의 원인을 '자존감'과 '소속감' 결여에 두었습니다. 따라서 문제행동을 예방하려면 학급운영, 수업운영, 생활교육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자존감과 소속감 향상을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자존감(Self-esteem)이란 자기 자신을 가치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인정하는 만큼 타인의 능력도 쿨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성공을 과시하거나 과대평가하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친구를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자아존중감이 낮은 친구일수록 있는 체 하거나, 멋진 체 하고, 친구들을 깔보는 행동을 합니다. 사실 자존감만 충분히 길러준다면, 교실에서 따돌림이나 왕따 등 학교폭력도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2학기를 준비하며 가장 마음써야 할 것은 아이들의 '자존감'으로 귀결됩니다. 자존감의 가장 큰 특징은 상황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뀌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장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상태로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걸려있는 아이의 자존감 교육, 7월에 진도도 거의 마무리한 때에 재미있고 의미있는 놀이로 키워보면 어떨까요?

### 1. 칠판 격려사위하기 활동

학기말이 되었을 때 틈나는 대로 한 명씩 교실 앞으로 불러 칠판 앞 의자에 앉게 합니다. 이때 한 학기동안, 그 친구와 함께

지내며 알게 된 좋은 점을 뒤에 있는 칠판에 적게 합니다. 칠판 앞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는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칠판에 무엇이라고 썼는지 생각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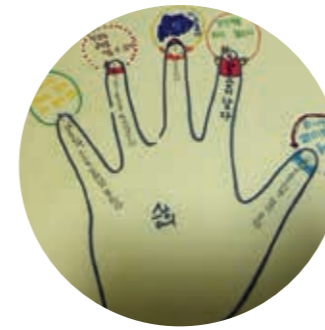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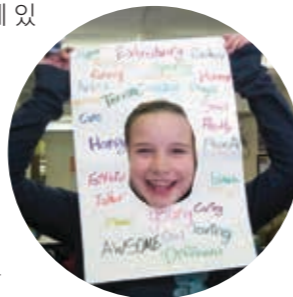
아이들이 모두 글을 쓰고 들머리 뒤에, 의자에 앉아있던 아이는 친구들이 한 학기동안 자신을 지켜보며 어떤 점을 좋게 생각했는지 퀴즈처럼 맞춰보게 합니다. 이때 아이가 이야기한 장점이 칠판에 적혀있으면, 그 장점에 분필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도저히 더 모르겠다고 하면, 돌아보고 친구들이 써준 자신의 장점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있는지 확인합니다.

자신의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적혀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내게 주어진 장점을 살려 친구들을 도울 수 있도록 약속합니다. 친구들이 찾아주었는데 미처 내 장점이라고 생각 못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칠판의 장점을 찾아 읽어봅니다. 친구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그동안 미처 몰랐던 자신의 장점을 통해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칠판 대신 8절지나 4절지 포스터에 얼굴 부분을 잘라낸 후에, 그 친구의 좋은 점을 찾아 적도록 해도 재미있습니다. 이때 형용사 중심으로 쓰도록 합니다. 그런 후에 얼굴을 포스터 중앙에 넣어 인증 사진을 찍어 줍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칭찬을 보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 2. 단점 손바닥 그리기 활동

호주의 이 샌드위치 가게에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주문받는 사람도, 테이블도, 의자도 없습니다. 심지어



7월, 그동안 진도에 쫓겨 챙기지 못했던 아이들의 마음을 돌봐줄 수 있는 여유로운 '성찰'의 시간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 모두 서로의 만남을 통하여 얼마나 성숙해졌는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층도, 2층도 아니고 7층입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호주의 샌드위치 가게 '재플셔츠' 이야기입니다. '낙하산을 탄 샌드위치'로 유명한 재플셔츠는 샌드위치의 맛에 낙하산으로

떨어지는 샌드위치를 받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임대료가 비싸 7층에 가게를 연 아담과 데이비드, 휴는 가게의 단점을 장점으로 바꾼 것입니다.

호주의 재플셔츠가 그렇듯 여러분에게 단점은 정말 단점일까요? 먼저 자기 손가락을 따라 손을 그립니다. 그런 후에는 손바닥 부분에 자신의 이름을 꾸밉니다. 이제 손가락 다섯 마디마다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단점을 적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내성적인 성격은 단점일까요?" 아이들은 이내 "신중해요" "생각이 깊어요" 등 내성적인 성격이 단점이 아니라 장점일 수 있음을 찾아냅니다. '고지식한 성격'은 곧은 성격이라 믿음을 주고, '싫증을 잘 내는 성격'은 그만큼 머리회전이 빠르다고 발표합니다. 이렇게 단점은 꼭 단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돌아다니며 친구들이 손가락 마디마다 써놓은 단점의 또 다른 면, 장점을 찾아 손가락 바깥쪽에 적어주도록 합니다. 그동안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내 성격의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는 다른 아이들의 모든 면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타인을 받아들이고 그의 개성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단점 손바닥 그리기' 활동을 통해, 그동안 못마땅했던 자신의 단점이 어쩌면 장점이 될 수도 있겠구

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 3.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감정파이 활동

'감정파이 활동'은 원래 자신이 자주 드러내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 있는지 원그래프로 표현하는 활동입니다. 감정파이



활동을 좀 더 발전시켜 '내게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친구들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보았습니다. 먼저 학습지의 1번에는 자신이 가진 장점을 찾아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2번에는 세 개의 빈 감정파이에 자신이 부족한 점을 적도록 합니다. 이때 부족한 점을 그대로 쓰지 않고, 채우고 싶은 모습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달리기를 못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면, '달리기가 빠름'이라고 단점을 채울 수 있는 표현으로 쓰고, 달리기가 빨라 내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친구 이름을 씁니다. 그 후에는 그 친구를 찾아가 "나는 달리기를 잘하는 네가 정말 부러워."라고 칭찬해주며, 그 친구의 사인을 받도록 약속합니다. 나를 찾아온 친구에게 사인을 해주며 아이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까요? 적어도 경쟁적인 마음보다는 '협력'하는 마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저는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고, 당신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훌륭한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벨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스스로의 부족함을 친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학기를 정리하는 이런 마음으로 2학기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㉞

궁금하다  
궁금해~

## 쿨하고 싶지만 불안한, 내 아이의 '이성교제'

천둥보다 번개가 빠르듯, 어른들이 이성교제의 찬반을 논하는 사이, 아이들은 이미 그 이상과 맞닥뜨리고 있다. 다들 말한다. "엄마 아빠 때보다 속도가 빠른 것 같아."

### 어디서 만나나

유치원부터 중학교까지 남녀공학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만나는 경우가 제일 흔하다. 그다음은 학원이고 인터넷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을 살펴보다가 유치원 동창의 근황을 알게 되거나 내 친구의 중학교 이성 동창 중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 생긴다면 온라인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연락을 주고받다가 오프라인으로 만난다. 반팅도 있는데, 남고 2-3반 아이들과 여고 2-3반 아이들이 단체톡방을 만들어 연락하다가 친해지면 그룹으로 노래방을 가거나 식사를 한 후, 1:1로 만나는 것이다. 하지만 반팅은 불행하게도(?)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다.

성공률이 높은 것은 친구의 소개로 '이어지는' 것이다. 마치 중매쟁이를 사이에 두고 남녀가 만나듯, 친구의 소개로 고등학생들이 연하의 중학교 동창을 소개받는 것이다. 남고생들의 경우, 길을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보고 과감히 접근해서 전화번호를 얻는 일도 있다. 그런데 이성교제는 보통 언제 시작할까? 사춘기와 일치하는 16세 무렵이 가장 많다.

### 어떻게

호감이 가는 이성을 발견하면, 좋아하긴 하지만 연애를 하진 않는 '썸 타는' 상태가 된다. 썸을 타는 기간 동안 밀당을 하면서 서로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다. 어느 정도 썸을 타는 시간이 지나면 고백을 하고, 서로 연인으로서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이성교제를 시작한다. 요즘 아이들의 데이트 장소는 영화관, 노래방, 관광지나 번화가 산책을 하면서 쇼핑도 하고 먹거리도 찾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대략 성인들과 비슷하다. 데이트 비용은 일반적으로 내는 것보다 더치페이가 대세고, 가끔 어른들의 흥내를 내서 술을 먹기도 하는데, 술집에서는 못하고 집이나 야외에서 먹는다.

아이들은 이성교제 시 신체접촉을 어떻게 할까? 커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고백을 기점으로 빠르면 10일쯤 지나 손을 잡고, 20일쯤 지나 어깨동무를 한다. 이 대목에서 잠시 멈추고 상대가 성충동만으로 접근한다고 느끼거나, 성격적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면 헤어진다. 그러나 서로에 대한 믿음이 많이 생기면 10일에서 100일 사이에 가벼운 볼 뽀뽀를 거쳐서 입맞춤을 한다. 더 나아가서 성관계를 하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니까 데스몬드 모리스라는 학자가 『접촉』이라는

우리 아이들은 사랑과 성에 대한 욕망과 무지 사이에서 헛디딜까 긴장할 때, 간섭이 아닐 만큼 부드럽고, 두려움을 달래줄 만큼 지혜롭고, 절제에 도달할 만큼 엄한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게 아닐까?

책에서 말한 이성 간의 접촉 단계와 일치한다.

아이들은 이성 친구와의 만남을 축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보통 22일, 50일, 100일, 200일, 1주년 이런 식으로 기념일을 챙기는데, 보통 100일 단위로 한다. 그렇다고 모든 커플이 기념일을 챙기는 건 아니고 오히려 싫어하는 아이들도 많다.

### 아이들의 의견은?

이성교제를 하다가 성적이 떨어질까봐 제일 많이 걱정한다. 아니, 두려워한다. 핸드폰 사용량이 증가하고, 시간을 많이 쓰고, 만약 실연하면 충격 때문에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고 그래서 자신의 진로가 막히는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이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성교제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신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더 조심스럽다. 학업과 이성교제를 병행하는 균형 잡힌 생활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지 몰라 난감해한다. 또한 부모세대에 비해서 이성교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높아졌고, 성관계까지 가는 속도도 빨라져서 불안감이 더하다. 게다가 이성교제를 단순한 만남이 아닌 성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전략적으로 하려 드는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염려가 되기도 한다. 만에 하나 원치 않는 성관계, 임신, 실연, 학업중단 같은 일에 빠지면 '나는 여기서 끝이구나.' 하고 모든 것을 놓고 무너져 버리는 것도, 어른들도 교훈만 할 뿐 도움이 되진 못해서 괴로움이 가중되는 것도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이런 난제 앞에서 마치 여울을 거슬러 올라가느라 웅기종기 모여 있는 연어처럼 긴장이 심하다.

이때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무얼 바랄까? 이성교제는 근본적으로 자유로워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비록 나이는 어릴지라도 지나친 조언이나 심한 개입을 원치 않는다. 어른들이 너무 아는 체하면 반항심이 들기 때문이다. 그 대신 연애와 공부에 대한 경험담이나 좋은 얘기들을 해주고, 공부와 이성교제를 어떤 순서대로 하는 게 좋은지, 만약 균형을 잃었을 때는 어떻게 회복하는지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보면 우리 아이들은 사랑과 성에 대한 욕망과 무지 사이에서 헛디딜까 긴장할 때, 간섭이 아닐 만큼 부드럽고, 두려움을 달래줄 만큼 지혜롭고, 절제에 도달할 만큼 엄한 목소리를 듣기 원하는 게 아닐까? ⑤



# 즐겁고 재밋게 배우는 수학체험

보온병은 왜 원기둥일까?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일상 속에도 수학적 원리는 숨어 있다. 동일 조건에서 여러 도형의 면적을 계산해 보면, 원기둥 모양은 가장 적은 재료로 최대한 많은 양의 액체를 담을 수 있다. 이처럼 수학은 생활 속 필요에 의해 탄생한 실용학문으로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7월에는 즐겁고 재밋게 배우는 수학체험을 해보자.



양산수학체험센터 교구를 활용한 수학체험

의 밝은 모습과 탐구하는 모습을 함께 체험하고 싶은 가족들은 꼭 한 번 참여를 권한다. 한편, 방학을 맞아 양산, 창원, 김해지역의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 '여름방학 체험수학캠프'도 운영할 예정이다(문의 ☎055-381-1203).

## 부모님과 함께 찾아가는 수학체험센터 양산수학체험센터

2015년 8월에 개관한 양산수학체험센터는 전국 최초 공교육 기반 수학체험센터로, 학생 스스로 원리와 개념을 탐구·발견하는 경험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수학 무한상상실, 체험수학교실, 수학이 있는 카페 등에서는 각종 교구를 활용해 수학 원리를 재밋이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체험수학 프로그램'을 평일에 운영하며, 주말(토요일)에는 가족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토요 수학체험교실'을 열고 있다.

먼저, 평일에는 '수학으로 무한 상상의 나라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교실 등에서 체험수학 활동을 한 후 무한상상실로 이동하여 다양한 대형 수학 교구를 손으로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다. 평일 오전 10시, 오후 2시를 시작으로 2시간 동안 2회에 걸쳐 진행된다.

보통 학부모의 수학에 대한 인식이 자녀의 수학공부 방법을 좌우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와 함께 체험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매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가족단위 신청을 받아 토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까지 체험수업을 운영한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으며, 전화 접수도 가능하다. 자녀

## 보고 듣고 느끼는 '수학체험관'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남산분관

타원의 원리를 당구대로 구현한 타원 당구대. 톱니 수가 다른 두 개의 톱니바퀴는 수의 개념인 공배수와 공약수의 이해를 돕는다.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 남산분관에 마련된 수학체험관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각종 전시물을 직접 만지며 수학의 원리를 배우는 공간이다. 파스칼의 삼각형, 수 천칭, 하노이 탑, 에라토스테네스의 체 등으로 수의 개념을 이해하는 '수의 세계', 삼각퍼즐, 마름모 퍼즐, 개미 퍼즐, 하트퍼즐 등 각종 퍼즐로 도형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퍼즐의 세계', 다면체 거울, 변형별모양 다면체, 아르키메데스의 다면체 등을 통해 배우는 '입체의 세

수학체험관 '톱니바퀴로 배우는 배수'의 밝은 모습과 탐구하는 모습을 함께 체험하고 싶은 가족들은 꼭 한 번 참여를 권한다. 한편, 방학을 맞아 양산, 창원, 김해지역의 초·중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학습동기를 높이기 위해 '여름방학 체험수학캠프'도 운영할 예정이다(문의 ☎055-381-1203).



수학체험관 '파스칼의 삼각형'

계, 사각·오각바퀴, 맨홀뚜껑이 둥근 이유 등을 이해하는 '생활 속의 수학' 등으로 구성되어 수학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접하게 한다.

수학체험관과 연계한 수학 체험교실은 초등학교 학급단위 또는 개인별로 다양하게 진행된다. 특히, 남산토요수학교실은 4주간 진행되는 수학 창의력교실로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열리며, 개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월별 초등학교 학년별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전월 1일부터 사전예약이 가능하다(문의 ☎02-311-1272).

## 3D 수학 갤러리 '이미지너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암호, 빅데이터, 의료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수



수학문화축전

리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이곳에서는 수학 관련 고급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수학 대중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수학을 활용해 산업과 과학기술의 문제를 다루는 '산업수학'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 강연과 부스 체험, 진로 특강을 통해 수학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에게 심화 학습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지너리(imaginary.org/ko)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제공하는 3D 수학 갤러리 플랫폼이다. 첨단 IT 터치 패널을 사용해 수학적 개념을 직접 시연해 볼 수 있으며, 미분이나 방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연구현장체험 '주니어 닥터'

식을 활용해 쓰나미 시뮬레이션 제작하거나 수식을 곡면으로 구현한 조형물을 제작해볼 수 있다. 매주 목요일 체험, 견학이 가능하며, 일주일 전까지 홈페이지(www.nims.re.kr)나 이메일(imaginary@nims.re.kr)로 체험 신청을 할 수 있다. 방학을 맞아 7~8월에 열리는 수학 강연도 놓치지 말자(문의 ☎042-864-5700).

NIMS 이미지너리



##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수학특강 및 전시

프로그램	일시	기간	대상	장소
주니어 닥터 (과학기술 청소년박사)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현장 체험 프로그램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참여 수학 특별강연 • 근사한 근사: 수학적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만드는 방법 • 균형의 신비, 레오나르도 돔 • 프랙탈의 신비 • 대칭: 자연의 언어, 수학의 규칙 • 구슬: 문명의 이기, 수학의 산물	(신청) 7.10 ~ 7.14 (운영) 7.24 ~ 8.19	초5~중3	대덕연구개발특구
대한민국과학창의축전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과학축전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이미지너리 전시 체험관 운영	8.10 ~ 8.15	누구나	일산 킨텍스
수학문화축전	수학 관련 전시 및 대중강연 진행	8.19 ~ 8.20		국립과천과학관

가족과 함께하는 토요체험수학교실(양산수학체험센터)

## 알아두면 유용한 교육민원



### Q 대학입시에 수시모집 대학의 복수 지원 허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시모집 대학에 있어서는 전형 기간이 같아도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산업 대학·전문대학은 제한 없이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 내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 Q 대학입시에서 농어촌 특별전형과 재외국민 특별전형 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어촌 특별전형 자격기준은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소재지, 재학기간, 학생 거주지, 거주 기간 등 최소한의 자격 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로 결정하고 모집 요강에 명시합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 기준은 외국 거주로 인한 학교급별 수학 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기간) 등을 고려하여 자격 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모집 요강에 명시합니다.

### Q 대학 등록금 반환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등록금의 반환 기준(제6조 제2항 관련)에 따르면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함)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명예기자 리포트



교사, 학부모, 대학생 등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넘치는 『행복한 교육』 명예기자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식을 전합니다. 현장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담과 희망으로 씨내려간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편집살>

『행복한 교육』 웹진(<http://happyedu.moe.go.kr>)에서 명예기자들의 기사 전문과 생생한 교육이야기를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 무더위를 시원하게 우리 반 '팔빙수 DAY'

“우와~! 팔빙수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오면서 외쳤다.

학생들을 위한 교실 속 작은 이벤트! 우리 반 '팔빙수 DAY'가 열렸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주변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았다. 평소 수업을 하던 교실이 팔빙수 전문점으로 바뀌었다. “무더운 더위를 시원하게 ‘양쌤 팔빙수!’가 찾아왔습니다.” 학생들은 팔빙수를 기다리면서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다.

우리 반 '팔빙수 DAY'는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전기 실습을 하면서 전공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깜짝 이벤트였다. 빙수기에 얼음을 갈고 과일, 젤리, 떡, 팥 등 다양한 재료를 넣어 만든 팔빙수를 학생들과 함께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전기와 3학년 1반 파이팅!

양지훈 명예기자(안산공고 교사)

### 놀이교육 직무연수 운영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신체 건강 증진, 정서적 안정으로 학교폭력예방, 초등학생 발달

달 단계에 맞는 놀이교육의 현장 적용, 학교 내 놀이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6월 15일(목) ~ 7월 6일(목) 동안 주 1회 3시간씩 놀이교육 연수를 관내 2개의 학교(양일초, 신원초)에서 운영하였다. 연수 기간 동안 참가 교사들은 놀이의 진정한 가치, 아이들의 놀 권리 이해, 전래 놀이, 세계의 다양한 놀이, 바깥 놀이 그리고 학교 현장 적용 놀이를 배웠다. 바깥에서 놀 기회가 많이 사라진 우리 아이들에게 놀이의 즐거움을 주고자 50명 이상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였으며, 놀이를 통해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좋아지고, 학교에 와서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더 즐겁기를 소망하였다. 이번 놀이교육 연수의 이름은 '놀자 놀자 맘껏 놀자'이다. 놀이를 통해 아이들의 웃음과 행복이 끊이지 않길 상상해 본다.

황형준 명예기자(벽제초 교사)

### 부산디지털고의 '매직(매력적인 직업계고)' 시작



교육부의 '매직(매력적인 직업계고 육성)' 프로그램으로 부산에서 선정된 7개 직업계고를 직접 찾았다. 가장 먼저 전국 유일의 디스플레이 특성화학교인 부산디지털고등학교에

서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Q** 학교를 소개해 주십시오.

**A** 전기과와 전자과의 2개 학과와 학년 별로 전기과 2개 학급, 전자과 5개 학급 총 23개 학급에 600여 명의 학생이 있다.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오고 싶은 매력적인 학교가 될까? 고민 중 새로운 대안으로 학과를 개편했다. 군부사관 학교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군 특성화 2개 학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Q** 매직을 신청하게 된 동기는?

**A** 오고 싶은 학교로 만들기 위해 강당 구축, 인조잔디를 만들었지만 65년 이상된 내부 시설, 특히 실습실이 낙후되어 실습실 개선을 위해 매직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Q** 매직에 대한 기대치와 운영은?

**A** 매직 사업을 통해 교과 간 융합적으로 움직이면 수업의 질을 개선하는 데 시너지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석원 명예기자(프리랜서)

### 소안10조로 행복한 학교를 가꿔요!



경기 소안초는 전교어린이회를 통해 아이들 스스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소안10조'를 만들었다. 주로 학교에서 아이들과 다툼이 있는 내용들을 '존중의 약속' 형식으로 담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류한 후 전교어린이회의 시간에 포스트잇에 자신들의 의견을 작성해서 공통된 의견을 모았다.

전교어린이회장 6학년 2반 정예송 학생은 학생들 자신이 발표하고 주장한 것이기에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정해주는 것보다 더욱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소안10조 실천을 통해 어려서부터 민주시민의식을 기르고 바른 행동을 실천하여 행복한 학교를 가꾸었으면 좋겠다.

조원표 명예기자(부천소안초 교사)

### 하나 두울 셋! 생명을 살리는 기술



내손으로 심장을 뛰게 한다. "하나 두울 셋! 가슴 깊이 5센티 정도 충분히 압박을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해야 합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높여지고 있다. 이 소리는 지난 6월 20일 장흥 안양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강사의 구령에 맞추어 심폐소생술을 하는 소리이다. 군 단위 보건교사가 없는 학교가 의외로 많아 몇몇 학교 교직원들이 교육청 및 지자체의 교육일정에 맞추어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심폐소생술로 인해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는 기사를 간혹 접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이 크다.

문승욱 명예기자(한국말산업고 교무행정사)

### VR 페스티벌 연계 '청소년 VR 힐링캠프'



지난 6월 1일(목)부터 6월 3일(토)까지 부산 해운대 벅스코에서 3일간 '2017 부산 VR(가상현실) 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2017 부산 VR(가상현실) 페스티벌은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이 보이고 있는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인 VR/AR/MR 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VR/AR산업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VR페스티벌 행사기간에는 부산VR페스티벌과 연계하여 감성놀이터 주관으로 3일간 진행된 청소년 VR 힐링 캠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다.

본 프로그램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한바다중학교 정도건 교장은 "평소 학생들이 관심있어 하는 VR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향후 발전가능성이 무궁무진한 VR을 직접 배우고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꿈과 접목하여 더 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은희 명예기자(한바다중 교육복지사)

### 나눔과 희망을 실천하는 태평중학교



대전역 동광장에서는 매주 일요일마다 주변에 계신 독거노인이나 형편이 어려워 한 끼를 먹기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해 드

리는 봉사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이 곳 봉사활동의 현장에서 나눔과 희망을 실천하고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서 취재해 보았어요.

그 학생들은 태평중학교 1학년 아이들입니다. 이승연 학생은 "무거운 짐도 함께 나르고 준비한 자장면도 나르고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께 반찬도 가져다 드리고 채소 다듬는 일도 도와드리고 반찬포장도 하고 많은 일을 해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보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라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성장해가는 학생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나눔과 희망의 촛불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영식 명예기자(국제교육신문사 대전지부장)

### 풀벌레 소리 들리는 은평교실



서울 구현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은평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주관하는 생태체

험학습 '풀벌레 소리 들리는 은평교실'에 다녀왔다. 숲 해설사 신원영 선생님과 함께 탐골생태공원에서 숲의 형성 과정과 숲의 이로움에 대해 체험하고 방아다리골에서는 곤충과 숲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확대경을 통해 식물의 줄기도 보고, 친구들과 함께 줄지어 애벌레가 되어 산새가 나타났을 때 숨는 체험도 해보았다. 마지막 활동으로 은평플랜트로 이동하여 분리수거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재활용품을 직접 분류해 보기도 했다. 초록빛 자연을 체험하며 우리 학생들의 꿈도 더욱 푸르게 영글어 가고 있다.

백희 명예기자(학부모)

### 제1회 김포시 진로교육페스티벌



지난 6월 10일(토)에 김포에서는 온마음이 함께하는 제1회 진로교육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김포시청, 김포교육지원청 주최, 김포시청소년육성재단, 김포교육문화발전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된 진로교육페스티벌은 시민 1만5천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진로 및 진학 상담을 위한 컨설팅 버스 35개, 진로직업체험, 창의특성화 체험 프로그램, 대학·전공학과 등의 자율참여 버스가 72개소로 운영되었으며 김포시민들을 위한 벼룩시장, 청소년 공연 및 오디션, 자기주도학습특강 등 여러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버스 중 많은 사람들로 붐볐던 김포대 버스에서는 아이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쿠키 만들기, 보정사진 및 포장디자인, 페이스페인팅 및 디퓨저 만들기 등 흥미로운 체험이 제공되었다. 이번 행사가 김포뿐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긍정적 변화가 되는 나비의 날갯짓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이희 명예기자(세계시민리더십아카데미)



### 일산초등학교 건강지킴이!



“선생님, 저도 내년에 보건봉사부 하고 싶어요. 꼭 시켜주세요”, “선생님! 보건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

보건실에 치료 받으러 온 4학년 여자 아이가 내년에 꼭 보건봉사부에 참여하고 싶다고 애교를 부리며 간다. 교내 조경이 유난히 아름다운 일산초등학교에는 어린이들의 균형 있는 인성발달을 위한 다양한 학생동아리가 있다. 그 중 보건봉사부는 건강생활을 위한 선도역할을 하는 건강지킴이 동아리부서이다. 56학년 학생 중 건강과 봉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절차를 거쳐 선발되며, 보건교사에서 특별 보건교육을 받고 보건관련 봉사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2016년도부터는 인형극을 직접 배워 출연예방 인형극을 본교 저학년 동생들과 고양 일산유치원생, 관내 인근초등 학교 등 3회에 걸쳐 공연을 실시하였다. 올해도 공연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초등학교 시절의 건강지킴이로서의 경험들이 기반이 되어 꿈의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데 작은 기여를 하길 마음속 깊이 기대해본다.

천아영 명예기자(원종초 보건교사)

### ‘씨니와 함께’ 드론으로 배우는 인성교육



대구 신암지역아동센터에서는 SK 대학생자원봉사단 씨니와 함께 하는 크리에이티브스쿨이 한창이다. 드론을 통한 인성교육을 모토로 진행되는 10주차간의 활동은 학생들이 접해보기 힘든 드론을 직접 조종하는 기회를 주고, 나아가 협력하고 양보하는 자세를 통해 바른 인성을 함양하도록 돕는다.

SK대학생자원봉사단 SUNNY는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추구하는 가치로 삼아 전국 3천여 명의 대학생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아동들에게 창의적인 봉사활동을 제공하고자 모였다. 이번 대구 신암지역아동센터에서의 크리에이티브스쿨에서는 12명의 씨니대학생들과 12명의 아동들이 1:1매칭으로 짝꿍을 만들고, 함께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하면서 협동심을 기르고, 차례차례 순서에 맞게 직접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협동과 양보의 미덕을 익힐 수 있었다.

주동관 명예기자(경북대 학생)

###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책을 사랑하는 이스라엘 교육방법을 만나다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7 서울 국제도서전이 6월 18일 성공리에 폐막하였다. 변화하는 독서 환경을 반영하여, ‘변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판에는 출판사 161개사, 서점 23개사가, 국제판에는 올해 주빈국인 터키를 비롯한 이스라엘·캐나다·이탈리아·대만·중국·프랑스 등 18개국, 80개사가 참여하는 등 규모가 굉장하였다. 단순히 출판사 부스를 설치하여 책을 판촉하는 것에서 벗어나, 20개 동네책방들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책을 추천하는 ‘서점의 시대’에서부터 중소출판사 50개사가 자신들의 개성을 뽐내며 7종의 책을 분류해 추천하는 ‘책의 발견전’, 전문가와 독자가 일대일로 텐트 속에서 만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독서 클리닉’ 등 독자와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셉트의 기획전과 프로그램들이 많았다.

이번 행복한 교육 7월호에서는 특히 ‘나다프 펠드만’ 주한 이스라엘 공관 차석님과 함께 책 많이 읽기로 소문난 이스라엘 어린이의 교육 방법 및 책의 중요성에 대해 나누는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 Q 서울 국제도서전 참여 이유와 이번 자리를 통해 가장 알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

A 이번 도서전을 통해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한국인들에게 이스라엘을 문화적 측면에서, 다시 말해 책을 통해 이스라엘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사실 이 주는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도서전(Hebrew Book Week)’ 기간입니다. 1961년부터 시작된 저희 도서전은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한 주 동안 이루어집니다. 모든 출판사와 독자들이 참가하여 책에 대한 소개, 책 읽기, 판촉, 작가와의 만남 등이 이루어지죠. 같은 한 주를 여기 한국에서도 도서전으로 보내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 Q 책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인구의 0.25퍼센트에 불과하나, 노벨수상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스라엘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접하는 ‘탈무드’와 신앙 교육을 그 이유로 많이 꼽는데 진짜인지 궁금합니다.

A 노벨수상자들 중 대부분이 이스라엘인은 아닐 겁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인의 구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노벨수상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인들이 추구하는 ‘혁신’교육이 노벨 수상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넘어서서 혁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둘째, 유대인들의 문화가 한 몫 하지 않았을까요? 저희의 문화를 보면, 아주 예전부터 학자들을 향한 강한 존경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이들이 성서를 읽고 종교적이진 않지만 여전히 그러한 부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 Q 어릴 때부터 이루어지는 독서 교육방식이 궁금합니다.

A 저희 이스라엘 어린이들도 컴퓨터게임 및 오락을 즐깁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더 많은 책들을 읽을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째, 파자마 도서관(Pajama Library)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일 년에 대략 8권 정도를 센터에서 소개받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집에 가져와 잠들기 전 부모님과 책을 읽고, 토론을 합니다. 파자마를 읽는 순간 본인들은 책을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둘째, 이스라엘의 여러 학교에서는 ‘도서평가전’이 이루어집니다. 책을 학생들이 직접 평가합니다. 단순히 권장도서를 읽고 그 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책들을 읽고 어느 책이 더 좋은지, 어느 책이 자신에게 더 적합한지 등 책에 학생들이 등급을 매깁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세 아이



‘나다프 펠드만’ 공관 차석

를 두고 있지만 책을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늘 장려하고 있습니다.

#### Q 많이 알려진 어린이 교육법으로 ‘하브루타’가 있는데, 질문과 토의를 기반으로 한 하브루타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사실상 하브루타는 교육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종교교육에서 나온 것이죠. 따라서 순수 교육에서 사용되는 질의응답을 하브루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친구’라는 뜻을 지닌 이 하브루타는 친구와 함께 묻고 질문하며 공부하는 것이죠. 이러한 근본적인 방식이 이스라엘에도 적용

되어 아이들이 서로에게 가능한 많이 질문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질문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슈무엘 요세프 아그논도 좋은 책의 힘을 언제나 역설하였죠. 책을 통해 아이들은 새로운 세상을 접할 수 있습니다.

#### Q 책을 사랑하는 이스라엘인들의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혹시 오늘 도서전에서 나온 도서 중 추천하는 권장도서가 있나요?

A 이스라엘은 혁신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아마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천연자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야만 했습니다. 오늘 도서전에서 선보이는 책 중 『창업국가』라는 이 책을 특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책으로는 시리즈물로 나온 『아리에 삼촌』을 추천하고 싶군요. 아이들이 만약 두 개의 언어로 쓰여진 책을 동시에 보면서 언어의 차이와 그 독특한 특징들을 알아갈 수 있다면 더 멋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이지만 한국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이니깐요.

나다프 펠드만 공관 차석님의 “교육부에 감사드리며 책을 통해 이스라엘의 여러 문화를 소개하고, 또 한국과 연결되어 너무 감사드린다”라는 말로 인터뷰는 끝이 났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이스라엘의 독서교육과 그 문화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김희민 명예기자(경신고 교사)

## 소장품 관리전문가 ‘레지스트라’

도심 재개발과 함께 묻혀있던 고대 유물이 대거 발견되었다. 조심스럽게 발굴된 유물은 이제 박물관으로 옮겨져 사람들에게 고대의 비밀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소중한 유물이 박물관에 소장될 때 활약을 시작하는 직업이 바로 레지스트라이다.

박물관에 들어온 소장품들은 레지스트라의 손을 거쳐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데이터베이스화 되며, 전문가들과 협의 하에 최적의 장소에 전시된다. 해외에서 한국의 문화를 알릴 때에도 소장품의 결엔 레지스트라가 동행한다. 소장

품으로서의 역할이 끝날 때까지 유물의 결엔 언제나 레지스트라가 함께 있다.

소장품은 박물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소장품의 등록은 박물관 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레지스트라는 소장품 등록 정책의 확립과 소장품을 관리하는 일을 한다. 넓은 의미에서 큐레이터로 통칭될 수 있지만 레지스트라는 ‘소장품 관리원’으로서 디지털 시대를 맞아 업무가 세분화되는 등 변화를 맞게 되었고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박물관에 들어온 소장품들은 레지스트라의 손을 거쳐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데이터베이스화 되며, 전문가들과 협의 하에 최적의 장소에 전시된다.

### 레지스트라가 하는 일

- ☑ 소장품의 수집과 취득, 등록 및 정보기록, 대여 및 차용, 소장품 및 수장고의 관리, 소장품의 처분 등과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담당한다.
- ☑ 소장품의 구매, 수집 계획을 세운다. 유물 구입은 경매 등의 방법을 통하여 소장품 현황 및 향후 활용 계획 등을 고려해 관장 이하 각 박물관 전문직들과 협의 후 계획을 세운다.
- ☑ 수집된 유물에 유물번호를 부여하고 관련 정보를 문서화하여 소장품으로 등록한다.
- ☑ 수집한 유물들을 취득함에 있어 법적·윤리적 문제가 없도록 모든 확인 과정 및 서류 작성을 담당한다.
- ☑ 소장품이 외부 전시·대여·차용될 때 대여 및 외부 소장품의 차용 결정, 보험 평가 및 가입, 유물 상태 점검 및 포장, 운송 및 호송 등 전 과정이 레지스트라의 총감독 하에 이뤄진다.
- ☑ 소장품 및 수장고의 관리, 소장품의 처분 등을 수행한다.

**참고사이트**  
국립중앙박물관 [www.museum.go.kr](http://www.museum.go.kr)  
국립현대미술관 [www.mmca.go.kr](http://www.mmca.go.kr)

**참고문헌**  
한국고용정보원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  
한국고용정보원 『직종별 직업사전』



### 적합한 사람은?

미술사학,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등을 전공하고 미술학에 대한 학문적 지식 및 소장품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에게 적합하다.



### 필요한 자격은?

레지스트라를 위한 별도의 커리큘럼은 없으며, 주로 근무하는 곳이 미술관 및 박물관이기 때문에 학예사 자격증이 있으면 채용에 유리하다. 관련 자격증으로는 정학예사 1/2/3급, 준학예사 등이 있다.



### 필요한 공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미술사학, 고고학, 역사학, 박물관학 등을 전공해야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갖출 수 있다. 대부분 석사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므로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소장품의 해외 교류가 늘면서 외국어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밖에도 소장품과 관련된 폭넓은 분야의 교양과 지식도 갖춰야 한다.



### 활동 영역 및 진출 분야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갤러리, 상업화랑 등에서 활동한다.



### 전망 point

레지스트라는 소장품관리원, 예술품관리원이란 이름으로 한국직업사전에 등록된 직업이다. 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주요 콘텐츠인 작품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게 소장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후대에 영원히 남긴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직업이다. 일반 큐레이터에서 분리된 형태이지만 소장품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등 전문성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시대에 맞게 디지털 유물관리 업무 등이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②

##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노하우③

# ‘창의적 체험활동’ 기록은 이렇게...

학교생활기록부 7번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학생의 학교활동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라 대학의 평가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이다.

### [ 자율활동 ]

자율활동은 학급이나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활동이다. 자율활동의 특기사항은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보다는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개별적인 행동특성, 참여도, 협력도, 활동실적 등을 평가하고 상담기록 등의 관련 자료를 첨가하여 구체적으로 입력한다. 대학에서는 학교·학급 임원 활동 이력을 주로 본다.

대학의 평가자는 전교 학생회장, 학급 회장 같은 임원활동 경험 자체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보다는 **작다고 생각되는 역할이라도 학교 구성원으로서 수행한 역할의 내용, 그리고 활동과정에서 드러나는 학생의 주도성과 책임의식 등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구체적 역할과 활동의 과정, 느낀 점을 자기소개서에 연계하여 작성하는 것도 개별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긍정적 방법이다. 리더십을 강조하고 싶다면 리더 경험을 단순 나열하기보다는 리더십의 진정한 의미와 리더의 역량을 기른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 [ 동아리활동 ]

동아리활동은 학생들의 공통 관심사와 같은 취미, 특기, 재능 등을 지닌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창의적으로 표출해 내는 것을 주 활동으로 하는 집단 활동이다.

동아리는 지원할 대학의 전공과 관련이 있으면 좋지만, 굳이 대학의 전공과 고교생활의 동아리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전공과 관련한 ‘역량’에 초점을 맞추면 된다. 즉, 전공적합성을 위해 억지로 만들어 낸 동아리보다는 전공 관련 교과 공부 동아리가 더 학생답다.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정규 동아리를 보완할 수 있는 자율 동아리 하나 정도가 적당하다. 기재 가능한 특기사항 글자 수가 500자로 줄었기 때문에 전공적합성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해 집중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다. 학교마다 동아리활동에 집중하다 보니 전국의 고등학교 동아리 내용이 비슷해졌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의 결과물, 역할, 기여도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으면 변별력이 없다. 3학년 때도 동아리활동은 하는 것이 좋다. 활동을 평가할 때 지속성, 진정성, 우수성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다. 특기사항이 500자로 줄었기 때문에 동아리 담당 교사들은 정규 동아리와 자율 동아리 특기사항을 적절히 배분해 쓰는 게 좋다.



학교생활기록부 7번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다. 학생의 학교활동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라 대학의 평가자들이 관심 있게 보는 영역이다.

### [ 봉사활동 ]

봉사활동은 어떤 대가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자발적인 의도에서 개인이나 단체로 다른 사람을 돕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무보수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이해, 협동적의 고취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활동이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봉사시간의 총량이다. 예전에는 봉사시간의 양을 강조했지만, 지금은 확실히 양보다는 질이다.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3학년 때도 봉사활동은 계속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왜 그곳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지 고민하면서 봉사활동의 의미를 찾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회성 봉사활동보다는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봉사활동인지가 중요하다. **이왕 하는 봉사활동이라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자기주도적으로 개척하여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정성이 있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특기사항에 기록을 잘 남기는 것이 수시모집 봉사활동의 핵심이다. 특기사항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에 한하여 입력하되, 왜 그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기재하면 된다.

### [ 진로활동 ]

진로활동은 개인이 자신의 진로를 계획하고 그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며, 적절한 시기에 진로를 선택하고, 선택한 진로에 대해 잘 적응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이다.

학교생활에서 제공되는 진로활동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자연스럽게 채워지는 부분이다. 진로활동은 학생들이 진로활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는 과정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학생부의 다른 영역과 연계되어 평가되는 사항으로 진로를 확고히 설정하여 탐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탐색해 나가는 과정도 중요하다.** 평가자들은 평가 시 학생들의 진로 변경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다. 변경 사유만 학생부에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기면 된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탐색활동을 통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방향성을 설정하고 정교화하는 과정이 진로활동의 핵심이다. ㉠

3회에 걸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노하우를 소개합니다.

- ①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편
- ② ‘진로희망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편
- ③ ‘창의적 체험활동’ 편

# 생각을 술술 표현하는 아이로 키우기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알파고는 드디어 바둑에서 인간을 정복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새로운 시대의 키워드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의 경쟁자는 옆 자리의 아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인공지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때보다도 창의력과 표현력이 중요한 능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볼까요.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잠재력을 계발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 ‘책 읽기’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 키워라

집에서 부모가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책 읽기입니다. 책 읽기는 더 이상 지식을 넓히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늘 날의 책 읽기는 두뇌를 자극하고 언어기능을 발달시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그렇다고 아직 어린 아이에게 한글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읽어주실 때에는 최대한 실감나게 목소리도 바꾸어가며 읽어주십시오. ‘동화 구연’ 생각하시면 됩니다. 책을 읽어 줄 때에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읽다가 멈추고 아이에게 느낌을 물어 본다면 일상에서 있었던 일과 연결시켜

본다면가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책을 읽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소위 말해서 ‘독후 활동’이 중요하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읽는 책 마다 독후활동을 해야 하나보다 하고 부담 가지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입니다. 독후 활동은 10권 읽을 때 한번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이러한 독후 활동도 나이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가기 전 아이들에게는 단어의 어휘력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어 퀴즈 같은 놀이식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도 아직 언어적 논리력이나 표현력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어주는 것 다음으로는 평소에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이 대화에서도 대략 판가름이 납니다. 대화란 부모가 이야기하고 아이가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가 대화입니다. 좋은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아이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한 번 시작한 이야기는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때에도 반드시 아이의 눈을 쳐다보고 반응하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흥미를 잃어버리거나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잠재력을 계발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 아나운서 놀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라

자기 생각을 표현하려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고력이 발달해야 하고 적절한 어휘력이 갖추어져야 하고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이가 부모나 편한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잘 하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그러는 것이기도 하고 자신의 말하기가 매우 이상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아나운서 놀이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이가 낯선 생활 속의 자료로 기사를 만들어보게 하고 그것을 아나운서처럼 말하고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이 말하는 것을 스스로 볼 수 있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자신이 어떻게 하

고 무엇이 이상한지 알기가 쉬워서 자신의 말하기를 발전시키는 것이 한층 쉬워집니다. 실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발표를 힘들어 하는 아이가 스피치 학원에 잠시 다닌 후 발표에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위의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억압적이지 않은, 권위주의적이지 않은 가정 분위기입니다.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대화, 반론이 거역으로 받아들여지는 문화, 부족한 생각에 비난이 쏟아지는 분위기에서는 제아무리 사고력과 표현력을 키우는 훈련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고력과 표현력, 사실 가정에서 가장 자주, 많이 손상됩니다. 꼭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도 민주적인, 대화와 협치를 실천하는 가정이라면 자기 생각을 술술 말하는 아이로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②

# 왜 행복을 갈망하는가

글 김석수 경북대 철학과 교수

인간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幸福)이란 말뜻 그대로 다행스러운(幸) 복(福), 이른바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즐거움과 보람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는 경우이다. 물론 이 삶의 즐거움과 보람은 노력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는 아무리 노력하여도 고난과 실패를 거듭하기도 한다. 이 경우,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한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의 경우도, 언젠가는 자신의 삶에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즐겁고 보람된 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자 한다. 따라서 행복은 노력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도 있다. 자유를 갈망하는 인간이라면 그 어떤 인간도 이 행복이라는 선물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일찍이 서양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행복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선이자 궁극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역시 행복(εὐδαιμονία)을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자신의 능력, 즉 이성을 잘 발휘하여 자기실현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 칸트의 '행복'은 옳음을 행하려는 선의지

그런데 인간이 자신의 이성 활동을 통하여 자기실현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활동이 그저 잘 먹고 잘 즐기는 생리적 활동이나 심리적 활동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 활동은 인간의 자연적 한계, 즉 질병이나 죽음이라는 한계가 안겨주는 허무함을 넘어서 수 없다. 따라서 이런 활동으로는 인간은 자기실현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없다.

인간은 결코 홀로 행복할 수 없으며 타자를 통해서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자를 존경하는 윤리적 활동, 타자를 사랑하는 미적 활동, 타자를 믿고 타자를 위해 헌신하는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참된 자기실현은 자신의 자연적 한계를 넘어서는 자유의 지평을 마련할 때 가능하다. 이 지평은 이성이 자기를 보존하고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생리법칙이나 심리법칙을 넘어 타자를 배려하고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활동이나 타자를 위해서 희생도 감당해내는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성의 이런 활동은 윤리적 활동으로 이어져야 하며, 나아가 미적 활동이나 종교적 활동으로도 이어져야 한다. 인간은 결코 홀로 행복할 수 없으며 타자를 통해서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자를 존경하는 윤리적 활동, 타자를 사랑하는 미적 활동, 타자를 믿고 타자를 위해 헌신하는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

따라서 행복은 자기보존이나 자기만족에만 집중하는 쾌락을 넘어 타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그러므로 행복은 타자를 도구화하는 기술적 삶을 넘어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덕스러운 삶을 요구한다. 덕은 본래 힘을 의미하지만, 이 힘은 타자를 부당하게 지배하려는 힘이 아니라 자신의 탁월성을 제대로 길러내어 타자와 더불어 살아가려는 활동력이다. 그래서 저 유명한 철학자 칸트도 행복이 쾌락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염려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근거를 옳음을 추구하는 쾌락 의식보다 옳음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 의식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옳음이라는 가치보다 옳음이라는 가치에 주목하는 그는 행복을 최고선으로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와 달리 옳음을 행하려는 선의지를 더 중시하였다. 그는 옳음을 수행하는 의무 이행

없이 행복만을 추구할 경우, 인간은 자신의 존엄성의 근거인 자유를 상실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옳음을 추구하는 의무를 통해서 행복에 이르려고 하였다. 물론 그가 주장하듯이 의무와 행복이 일치하는 최고선에 이르는 것은 유한한 인간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 옳음과 좋음의 조화로 참된 자기실현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옳음을 추구하는 길과 좋음을 추구하는 길, 즉 해야 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에 부단히 갈등이 존재한다. 옳음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도덕적 형식주의나 보편주의에 빠질 수 있으며, 반대로 좋음을 지나치게 추구할 경우 쾌락주의나 이기주의에 매몰될 수 있다. 이 갈등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좋음을 추구하는 서로의 마음들이 조화를 이루어 아름다움에 이르도록, 즉 심리적 쾌락을 넘어 미적 공감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를 통해 우리는 미적 감정으로부터 선한 감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역으로 옳음을 추구하는 길이 형식주의나 보편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이른바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길이 미적 공감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각자의 좋아하는 감정들에 열려있되 조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따라서 옳음과 좋음의 조화, 의무와 행복의 조화는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삶을 넘어서는 미적인 삶의 과정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도덕적 삶을 일구어낼 수 있다. 이럴 때에 우리는 또한 참된 자기실현에 이를 수 있다. ②

# 경남 하동 길 의 들려준 이야기

쌍계사 입구

청록이 내달리는 칠월에 다시 하동을 찾는다. 설산을 선사했던 겨울과도, 꽃잎의 천국을 선물했던 봄의 초입과도 다른 푸른 여름나무 밑을 지나온다. 창을 열어 더위와 청량감이 적당히 버무려진 바람을 맞는다. 차창 밖 고즈넉한 낙동강으로 눈요기를 하며 제일 먼저 들어선 곳은 화개장터다. 영남과 호남이 어우러지고 산과 강이 만나는 지점에 화개장터가 자리 잡고 있다. 몇 해 전 큰 화재로 소실될 뻔했던 장터는 어느새 새 단장을 마쳤다. 산과 강이 주는 먹거리와 흥겨운 노랫가락과 오가는 사람들 목소리로 장은 생기 있게 북적거린다. 오래 전 김동리 작가가 「역마」에서 묘사했던 것처럼 '시원한 막걸리와 펄펄 살아 뛰는 물고기의 회, 주막 앞에 늘어선 능수버들가지 사이사이로 사철 흘러나오는 한 많고 멋들어진 진양조 단가와 육자배기'로부터 이어져 온 화개장터의 흥이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버섯 한 바구니를 사면 한줌 덩이 더 따라오는 인심 넉넉한 장터를 구경한 후 쌍계사로 간다.

## 수많은 문장가들이 다녀간 쌍계사

서산대사, 최치원, 조식 등 수많은 문장가들이 다녀간 쌍계사는 이야기의 보고다. 곳곳에 얽힌 사연이 시간의 커가 되어 남겨진 쌍계사 길목에서 최치원 선생을 만난다. 장승처럼 서 있는 바위에 최치원 선생이 썼다는 쌍계(雙溪), 석문(石門) 네 자가 새겨져있다. 석문을 지나 십여 분 쯤 걸어가니 쌍계사가 보인다. 눈 속 칙칙이 핀 곳에 육조혜능 정상을 모시라는 꿈을 꾸고 만들었다는 쌍계사는 설립 당시 옥천사로 불렸다. 그 후 두 개의 계곡이 만나는 곳에 위치했다 하여 쌍계사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탑, 진감선사 탐비, 마애불, 금당 등 절은 곳곳이 볼거리다. 유려한 최치원의 필치가 남아 있는 진감선사 탐비에 둔 시선을 금당으로 돌린다. 상념과 고민을 지우듯 108계단을 오른다. 음력 4월 14일을 지나 금당은 문을 닫고 있다. 문 앞에 서서 맞은편 산을 쳐다본다. 녹음이 절정에 이른 푸른 산이 목전(目前)에 이른 듯 가까워 보인다.

불상이 아닌 탑을 모셔둔 금당, 지난 해 봤던 탑을 떠올리며 불일폭포로 향한다. 폭포는 걸어서 왕복 두 시간 쯤 걸리는 산중에 있다. 무릉도원을 찾아 헤매던 최치원이 학을 타고 노닐었다던 환학대와 오두막 한 채가 남아있는 불일평전을 지나 불일암에 이른다. 고즈넉한 암자에서 스님이 건넨 차 한 잔으로 목을 축인다. 차가 목을 적시듯 눈 앞의 절경이 가슴에 스며든다. 시야를 채운 녹음이 말없이 등을 다독여준다. 이내 먼 폭포소리가 발을 재촉한다. 길동무들과 함께 즐기어



01

02

좁은 길을 걷는다. 누군가의 듬직한 뒷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가 하는 생각에 잠겼을 즈음 폭포소리가 가까워지는 걸 느낀다. 오솔길 끝에 폭포가 있다. 발걸음이 바빠진다. 나뭇잎 우거진 길의 막바지에 이르자 상하 2단에 높이 60미터라는 불일 폭포가 나타난다. 한복의 치맛자락 같은 산에 둘러싸인 폭포의 웅장함과 장엄함이 할 말을 잃게 한다. 백학봉과 청학봉 사이에 자리한 바위가 물길을 내두고 있다. 봉우리에서 쏟아지는 물이 바닥을 치며 소릿길을 낸다. 귀를 지나는 우렁찬 물소리에 갑갑했던 속이 뽕 뚫리는 것만 같다.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성불한 칠불사**

쌍계사에서 나와 칠불사로 향한다. 화개장터의 생기와는 또 다른 활기가 길마다 깃들여있다. 나뭇잎이 만들어낸 푸른 그늘과 강이 빛어내는 풍경 속을 천천히 지나온다. 잔잔한 바람 소리와 얽은 물소리를 듣자니 한 폭의 동양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차로 유명한 하동답게 한 집 건너 한 집 아기자기한 찻집이 자리 잡고 있는 도로를 달린다. 찻집으로 준비한 길 이 끝나자 고즈넉한 산길이 이어진다. 산울림에 귀를 연 채 칠불사 초입에 이른다. 김수로왕의 일곱 왕자가 수행에 들어가



03

성불했다는 전설이 깃든 칠불사. 여러 번의 화마를 딛고 일어난 절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깊은 골이 만들어낸 적요함 속, 수로왕 부부가 출가한 아들들을 보기 위해 만들었다는 전설의 못 영지(影池)를 만난다. 둥근 못에 산봉우리가 환영인사라도 건네듯 7월의 신록에 깊이를 더해준다. 싱그러운 바람으로 목을 적신 후 칠불사 문 앞에 당도한다. 토끼봉에 자리 잡은 칠불사의 첫 느낌은 어느 소설가의 작품 제목처럼 '환'이다. 사그락거리는 초록과 오후의 해가 겹쳐진 칠불사에 빛의 포말이 일고 있다. 아득한 산소리를 따라 대웅전에 들어선다. 고요한 대웅전이 석가모니 상 뒤의 목각탱화와 부처가 되었다는 수로왕의 일곱 아들의 부조를 눈앞에 내준다.



04



05



06

대웅전 옆에는 한 번 불을 때면 백 일간 온기가 지속된다는 것으로 유명한 아자방이 자리 잡고 있다. 새 단장 중인 아자방의 아쉬움을 뒤로하며 절을 돌아 나오는 길, 산자락을 타고 내려오고 있는 산돼지를 만난다. 울타리 속에서 낯선 방문객을 구경하는 검은 돼지들. 절을 찾아 내려온 산 손님과의 공생을 실천하고 있는 산사의 풍경이 입가에 미소를 드리운다. 공생과 나눔, 인내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으며 다시 차에 오른다.

**「토지」의 배경이 된 최참판댁**

왔던 길을 돌아 나온다.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최참판댁으로 방향을 잡는다.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트이는 너른 들판 옆으로 뻗어있는 길을 타고 최참판댁에 이른다. 입구에 내려서니 굽다시한 하늘빛이 정수리를 비춰준다. 상쾌한 공기가 코를 간질이고 들어온다. 이름 모를 꽃과 풀을 보며 칠불사와 쌍계사의 여운을 달래본다. 「토지」는 소설과 드라마를 통해 널리 알려진 대하소설이다. 25년에 거쳐 완성했다는 소설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을 옮긴다. 숨을 고르며 소설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것 같은 「토지」의 땅을 밟아간다. 영팔이와 팔순네 집으로 시작되는 초가집촌의 나지막한 담을 지나 으리으리한 규모를 자랑하는 최참판댁에 이른다. 기왓장 지붕이 길게 이어져 있는 집 대문을 들어선다. 안채, 사랑채, 별당 등 열개의 동마다 서린 사연이 발을 이끈다. 소설 속 「최치수」가 주로 머물렀던 사랑채를 지날 때는 기침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별당에 이르렀을 때는 「서희」의 당돌한 목소리가 울리는 것 같다. 그 생생함 속에서 찬찬히 「최치수」의 집을 돌아본다. 지주가문 후손 「최서희」와 그 주변 인물들의 삶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를 풀어낸 「토지」. 장독과 처마 밑 옥수수, 연못과 구들장.

- 01 「토지」의 배경이 된 최참판댁
- 02 쌍계사 마애불
- 03 칠불사 원음각 범종
- 04 최참판댁 가재도구
- 05 박경리문학관 내부
- 06 「토지」를 저술한 박경리 작가

곳곳에 「토지」의 사연이 담겨있다. 아련한 소설 「토지」를 상기하며 정수리 같은 꼭대기 지점에 이르러 지나온 길을 돌아본다. 바람 앞에 고개 숙인 퍼런 들판이 하늘을 마주보고 있다. 너른 들판 같은 토지 위에 25년에 거쳐 쓴 장대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만 같다. 돌아보고서야 깨우친다. 소설 제목이 왜 「땅」도 「대지」도 아닌 「토지」가 되었는지를. 비옥한 논 가운데 서있는 200년 넘는 부부송(夫婦松). 그 위로 「길상」을 그리고 「서희」를 불러낸다.

하동을 무대로 쓴 소설 「토지」. 한국문학사의 중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토지」는 평사리에서 그곳을 찾은 사람들을 통해 오늘도 못 다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 「토지」에 익숙한 이들에게는 소설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하고 「토지」를 모르는 이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가져다줄 최참판댁 풍경을 눈과 가슴에 담으며 느릿느릿 최참판댁을 벗어난다.

너른 토지 위에 길이 나 있다. 곧게 뻗은 찾길을 달리며 하동이 준 길 위의 만남을 되새긴다. 오늘의 이 길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 남으리라. 하동을 다녀간 이들의 사연이 2017년 초여름의 추억이 되어 곳곳에 새겨지리라. ㉞

# 더운 교실에서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입니다.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 고통스럽다고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이 있죠. 교실에서 무더위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입시와 공부로 지친 학생들이 더운 교실에서 시원하게 보내는 방법으로 부채 제작을 제안합니다. 부채에 직접 그림도 그리고 급훈을 적거나, 자신의 좌우명을 적거나 혹은 책에서 읽은 인상 깊은 구절이나 시구를 적으면 보다 운치 있는 부채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를 적어 놓고 부채를 부치면서 외운다면 공부와 시원함을 동시에 잡을 수 있겠네요^^

홍정은 / 강원도교육청 대학입지원관

뜨거운 햇볕을 가리기 위해 블라인드를 자주 치게 되는 여름, 블라인드에 시원한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여름과 관련된 그림을 각자 그리고 색칠한 후에 코팅해서 블라인드 위에 붙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환경이 가장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영근 선생님 학급에는 '아따'라는 특별한 날이 있다고 해요. 아따는 주마다 아이들이 정한 날, 하나의 주제로 학생 모두가 하나 되는 날을 말해요. 시원한 여름을 나기 위해 '하늘색 티셔츠 아따', '나시 아따', '빈바지 아따' 등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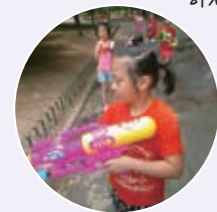
정선아 / 미산초 교사

여름철 땀병에서 체육수업을 하려면 너무 힘 들겠죠. 우리 학교는 인근에 나무들이 우거진 넓은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학급 대항전 물총놀이를 종종 합니다. 말 그대로 학급 대항전이기에 때문에 아이들끼리는 나름 치열하죠.



하지만 물총놀이를 하다보면 승자패자가 없이 끝날 즈음에는 모두 생취가 되고 맙니다. 온갖 물총이 다 동원되는데, 등에 물통을 지고 분사하는 물총에서부터 빈 패트병까지 다양합니다. 한 두 시간 물총놀이를 하고 나면 온 몸이 물에 흠뻑 젖기 때문에 여벌옷과 수건은 필수품이에요~.

김지원 / 학부모



7월은 우리 학생들이 방학을 앞두고 지치기 쉬운 달입니다. 이럴 때 집에서 각자 얼음팩을 하나씩 챙겨와 반 공기를 시원하게 만들고 가져온 얼음팩을 모아 깔아놓고 누우면서 더위를 식히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 교복으로 빈바지를 입도록 해 주시면 교실에서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윤 / 성수고 교사

한 달에 한 번 교복대신 자유복을 입는 날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유 복장을 허용했더니 아주 독특한 복장들이 등장했습니다. 선배 한 명이 바캉스 복장으로 학교에 왔더니 아이가 너무 즐거워하더군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시원하고 좋았다고요. 무더운 여름, 더위 속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바캉스 데이'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학생도 정장과 교복 대신 편안한 복장으로 마치 해변에서 공부하는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죠. 매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작은 이벤트들이 무더위를 잊고 학업에 정진하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진선아 / 학부모

더운 여름 날, 아이들을 더 짜증나게 하는 건 스트레스, 불편한 감정들입니다. 아이들이 학급이나 학교에 갖고 있는 불만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고 프로젝트 학습이나 회의를 통해 직접 개선하고 해결하는 것, 스트레스 해결은 곧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요?

방주용 / 광주북초 교사

더위를 피할 수 없다면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죠? 7월은 2차 지필평기도 끝나고 무작정 방학을 기다리는 시기, 무더위가 더해져 학생들의 학교생활도 무척 지루한 때입니다.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내면서 더위를 날려보세요. 저희 학교는 매년 이맘때쯤 학교 행사로 학년별 합창대회를 실시합니다. 합창대회를 준비하는 동안은 더위가 싹 잊혀지거든요.



한은경 / 원곡고 교사

'교3에게 더위란 없다'(사실은 무지 덥습니다). 하지만 단어 외우기 게임을 하다보면 어느 덧 지식도 쌓고 더위도 날리는 인식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만들어 먹는 빙수의 맛은 시중에서 사먹는 빙수와 비교할 수 없는 매력이 있습니다. 조별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재료 젤리, 초콜릿, 찹떡, 팥, 과일 통조림 등을 준비하고 학교에서는 얼음을 가는 기계만 준비합니다. 친구들과 빙수 한 그릇이면 더위가 '싹~' 물러가죠.



윤효원 / 가평고 교사

날이 더우면 수업에 집중도도 떨어지고 졸음이 오기 딱입니다. 이럴 때 쿨토시를 하나씩 끼고 수업한다면 조금은 시원해지지 않을까요? 또는 벽면에 자동 분사용 분무기를 설치하여 수업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규칙적으로 발사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원복연 / 김하고 교사



창문은 열고(또는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놓고) 교실 분위기는 끄고 으스스한 이야기들 해줍니다.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라는 식으로 약간의 러플을 섞어서 말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치거나 놀라게 하면 아이들이 깜짝 놀라는데 이 순간만큼은 잠시 더위를 잊을 수 있을 거 같아요.

조유진 / 화도초 교사

우리 아이 학교에서는 학기 초부터 선생님 주도하에 점심시간마다 '추억의 게임' 리그전을 하고 있어요. 제기차기, 딱지치기, 테트리스, 복분복 등 2~3주에 한 게임씩 리그전을 해요. 게임에 대한 열기로 더위를 이겨내는 것은 물론이고 친구들과 간에 우정도 쌓아 가고 있습니다. 이열치열! 한 여름에도 추억의 게임으로 즐거움도 찾고 더위도 잊는 방법 좋지 않을까요?

엄경애 / 학부모



시원한 여름을 위해서는 시원한 게 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먹는 것입니다. 기온이 몇도 이상 되는 날은 아이스티를 먹자, 아이스크림을 먹자 등등 약속을 정하는 겁니다. 앉아만 있어도 땀이 송글송글 피어오르는 날, 얼음이 동동 뜬 시원한 아이스티를 아이들과 나눠 마시는 기분이 최고입니다. 무더운 날 선생님이 쓰는 아이스크림도 엄청 맛있게요? 학급별로 여름 날씨와 관련된 약속을 정해보세요~

백선희 / 서정초 교사



- 운동장에서 축구 한편으로 땀 한 바가지 쏟아내고 시원한 아이스크림 한입!
  - 에너지 절약을 위해 세수 대야에 시원한 물 받아서 양말 벗고 발가락 쏘옥!
  - 쿨스카프 단체 주문해서 공공 얼려 목에 하나씩 걸치기!
- 장윤경 / 신길중학교 교사

전날 냉동고에 각얼음을 얼려 하루 중 가장 더운 4~5교시에 모둠활동 열심히 하는 학생들에게 비닐봉지에 담아 나누어 주면 더위도 식히고, 시원한 얼음으로 정신도 번쩍나서 공부에 집중도 잘 합니다.

김설한 / 인천영중초 교사

- 에어컨 바람 길의 자리를 사수한다.
- 얼음물을 준비해서 거드랑이에 밀착시킨다.
- 빈바지 체육복의 교복화!!

김상철 / 중앙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사



## 제6회 '대한민국 스승상' 시상식 개최

교육부는 한국교직원공제회와 공동으로 제6회 '대한민국 스승상'에 최종 선정된 9명에 대한 시상식을 지난 6월 22일 더 케이(The-K) 호텔에서 개최했다.

'대한민국 스승상'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진정한 교육자를 발굴하여 참다운 스승상을 정립하고 스승 존경 풍토를 확산하고자 '12년부터 교육부의 '으뜸교사'와 교직원공제회의 '한국교육대상'을 통합해 만든 교육 분야 최고 권위의 교육상이다. 올해는 35년간 학생 중심 수업을 실천하고 고민해 온 최혜경(55) 대구 효명초 수석교사, 놀이중심의 유아 창의·인성 교육을 실현한 오선녀(45) 화천유치원 교사 등 9명이 수상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9명의 수상자는 국민추천과 1·2차 공적심사 및 현지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근정 훈·포장 수여 및 상패가 전달됐으며, 부상으로는 대상 수상자에게 상금 2,000만 원, 부문별 수상자에게 상금 1,000만 원이 주어졌다. 수상자는 소속 학교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사례발표, 수업시연, 교원연수·양성기관 강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게 된다.

2017 '대한민국 스승상' 수상자 명단

대상	최혜경	대구효명초등학교	수석교사	홍조근정훈장	
부문별 수상자	유아교육	오선녀	화천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이만희	대전맹학교	교사	
	초등교육	김택신	서울성일초등학교	교사	옥조근정훈장
		정경열	대구논공초등학교	교사	근정포장
중등교육	강철오	밀성중학교	교사	근정포장	
	홍정태	상관중학교	교사	근정포장	
대학교육	신승우	경북전문대학교	교사	녹조근정훈장	
	정윤희	포항공과대학교	교사	옥조근정훈장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시도교육청별 자율 시행

교육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하여,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국가수준의 결과 분석은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지난 6월 20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교육부에서 선정한 표집학교에서는 단위학교 시행 매뉴얼에 따라 평가를 시행한다.

그 외 학교에서의 시행 여부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가 수준의 결과 분석을 위한 표집 규모는 전체 대상 학생 총 93만 5,059명의 약 3%인 2만 8,646명이며, 표집 학교 및 채점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과 개인별 평가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 안정적인 교육통계 기반 구축

교육통계조사 근거법과 각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통계조사의 운영·관리 체제가 갖춰지게 됐다. 교육부는 지난 6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교육통계조사 근거법과 각 법 시행령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교육통계조사 근거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육통계조사의 대상과 내용,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개정안에서는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올해부터는 유치원도 하반기조사 대상으로 포함키로 했다. 또한 통계 자료의 품질 관리 및 자료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 통계 산출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교육기본통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을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교육통계조사 업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중소도시·특수학교까지 지원 확대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지원이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중소도시 중학교와 특수학교까지 확대된다.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는 진로 체험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도서벽지, 농산어촌 소재 중학교 학생들에게 전문 직업인 멘토가 직접 찾아가거나, 학생들이 체험처로 찾아오는 형태로 진행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다. '15년 시작된 이 사업은 해마다 진로체험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 대상을 확장해왔으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수요를 고려해 참여기관과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

올해는 전국 읍면 소재 중학교 전체 1,207개교뿐만 아니라, 학생 1인당 평균 체험활동 횟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도시 일부 중학교 321개교를 선별해 1교당 1회 이상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특수교육대상 및 다문화가정 학생 등 수요자 특수성을 반영한 진로체험을 개발하고, 올 하반기 특수학교 20개교를 대상으로 진로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전문 직업인 멘토와 특화된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전문위탁 운영기관을 3개로 확대했으며, 현재 총 10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지난 6월 20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17년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 통계교육을 쉽고 재미있게 실생활 중심으로 실시

교육부와 통계청(통계교육원)은 6월 7일 빅데이터 시대 인재 육성을 위한 '2017 실용 통계교육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결과를 해석하여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통계적 소양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통계교육 내용을 실생활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개편하고, 교원 연수를 실시하며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한다. 통계청(통계교육원)은 공학적 도구인 통계교육 프로그램(SW 등) 개발, 교육용 실생활 데이터 제공, 교원 연수 등을 지원한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고등학교에 2018년부터 적용되지만, 실용 통계교육을 위한 교수학습방법은 올해부터 활용하도록 했다. 수학교과 통계 단원 수업을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연계해 자료 수집, 분석, 정리 등 학생 탐구 활동 중심 수업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기술지주형 등 대학창업펀드로 171억 원 조성

교육부와 한국벤처투자(주)는 대학창업펀드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창업펀드는 대학과 정부 매칭으로 대학의 창업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로서, 대학창업교육이 실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최초로 추진돼 대학현장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대학창업펀드 선정에는 (대학)기술지주형 11개, (개인)전문투자형 1개, 총 12개 조합이 지원한 가운데, 1·2차 심사를 통해 5개 조합(고려대기술지주, 부산연합기술지주, 서울대기술지주, 연세대기술지주, 전남대기술지주)이 선정됐다. 이들이 운용되는 조합이 선정됨에 따라 총 171억 원의 펀드가 조성됐다.

선정된 조합은 조합 결성 절차를 거쳐 대학 내 초기 창업기업 대상으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게 되며, 창업경진대회, 창업동아리, 대학원 랩(Lab)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창업 유망인재를 발굴하고 실천 창업까지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다큐멘터리 제작·보급

교육부는 학생들의 예술향유 능력과 창의성, 바른 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의 예술교육 활동 모습을 담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보급한다.



다큐멘터리는 예술드림학교(구로중), 예술거점학교(안양여고) 등 총 5편의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로 구성됐다. 구로중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뮤지컬 동아리 '가운'을 운영하며 서로의 국가와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학생들이 졸업하고 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 할 수 있도록 구로구 지역 학생으로 구성된 뮤지컬 극단 '온마을'도 창단했다. 안양여자고등학교에서는 교과 통합프로그램과 학교 간 공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예술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국어, 지리, 미술, 영어 교사가 학습공동체를 구성하고 4개 교과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했으며, 그 결과를 교내에 전시했다.

영상은 DVD와 파일 형태로 학교와 시도교육청에 보급하고, 인터넷(유튜브, youtube)을 통해 일반인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다. ㉔



#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

▶ 2017년 4월 1일 (토) ~ 2017년 11월 11일 (토)  
▶ 매주 토요일 14:00 ~ 16:00 (2시간)  
▶ 서울교대 종합문화관, 서초문화예술회관 아트홀

- 1강 삼국통일전쟁과 그 영향**  
4월 1일 ~ 4월 22일 | 노태돈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사)
- 2강 일상의 철학**  
5월 13일 ~ 6월 3일 | 강영안 (서강대학교 명예교수, 서양철학)
- 3강 새로운 작품 읽기 방법**  
6월 10일 ~ 7월 1일 | 최유찬 (전 연세대학교 교수, 국문학)
- 주제 1강 인문한국, 인간다움을 논하다**  
7월 8일 ~ 7월 29일
- 주제 2강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인문학**  
8월 12일 ~ 8월 26일
- 4강 왕실, 권력 그리고 미술 : 고려, 조선의 왕실발원 불화**  
9월 2일 ~ 9월 23일 | 김정희 (원광대학교 교수, 한국미술사)
- 5강 정의로운 사회와 도덕적 인간**  
10월 14일 ~ 11월 4일 | 성태용 (전 건국대학교 교수, 동양철학)
- 특별 강연 노래하는 인문학**  
11월 11일

인문학대중화 사무국 ☎ 02-739-1223



## 이벤트 01 『행복한 교육』 열혈 독자를 찾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열심히 읽으신다고요? 그렇다면 열혈 독자 이벤트에 응모해 주세요. 『행복한 교육』을 통해 알게 된 교육 정책이 있으면 3줄 이내로 사연을 올려주세요.

## 이벤트 02 『행복한 교육』 서포터즈를 찾습니다!

『행복한 교육』을 널리 알리는 서포터즈로 활약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서포터즈 이벤트를 놓치지 마세요.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 『행복한 교육』을 소개하거나 기사를 링크한 화면을 캡처해 올려주세요.

매달 20일까지 '행복한 교육(happyedu.moe.go.kr) 홈페이지 → 이벤트 참여'에 남겨주시면, 당첨되신 분께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문의 : (02)2271-0992

### 지난호 이벤트 당첨자

“매달 레이블을 붙여가며 열심히 읽고 있는 1인입니다! 6월호 학업 중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한수지 한수지 외 김건 신준철 서덕인 조윤진 님 축하드립니다.

발행일 2017년 7월 1일  
발행처 교육부  
발행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  
편집인 대변인 주명현  
기획총괄 홍보담당관 최기수  
교육연구사 김지선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변인실 431호  
TEL 044-203-6580

편집실  
편집장 황자경  
기자 이순이 한주희  
사진 김경수 최원석 이대원  
디자인 김수지  
영업 류광민  
서울시 중구 퇴계로 36가길 10  
세정빌딩 304호  
(주)전우용사춘  
TEL 02-2271-0992

가격 1,700원

<https://happyedu.moe.go.kr/>

『행복한 교육』 웹진에서 더 풍부한 소식을 만나보세요. 지면 관계상 책에 실지 못한 원고 전문과 지역 교육뉴스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가 발행하는 교육정책 정보지 『행복한 교육』을 교무실에서,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받아 보세요.

『행복한 교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신청하시면 무료로 『행복한 교육』을 보내드립니다.

문의 : (02) 2271-0992

신청 안내 홈페이지(<http://happyedu.moe.go.kr/>)

- 구독신청
  - 개인(모니터단) 신청하기
  - 학교단위 신청하기
  - 교육모임 신청하기